

프랜차이즈에 솔루션을 더 하다!
아시아 No.1 프랜차이즈 대표 박람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창업전

가맹사업 홍보,
신규 점주 모집을
통한 브랜드 확장

산업전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 솔루션
제시 및 판매

상반기 | 24년 3월 21일(목) - 23일(토), 코엑스 C&D홀
하반기 | 24년 10월 31일(목) - 11월 2일(토), 코엑스 C홀&The Platz

Franchise WORLD

착한 K-프랜차이즈는 일상이다

Vol. 66 2024

+ Cover Story

“점주단체 난립, 혐의요청 남발 산업 망치는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 반대”

거리로 나선 프랜차이즈 업계

중대재해법 5~50인 사업장
83만개에 시행

“식당 사장도 사고나면 범죄자”

Special Report

‘2024년 정기대의원총회’ 회원 권익보호 힘쓸 것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세계 누빌 K-프랜차이즈 리더 양성”

제13기 KFCEO 개강

농식품부, 프랜차이즈산업계

해외 진출 지원

People & Company

김진성 컴포즈커피 대표

박시연 아소비 대표



표지: 김진성 컴포즈커피 대표

SINCE 2014



No.1 Take-out Coffee
COMPOSE
COFFEE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
대한민국 NO.1 컴포즈커피



WWW.COMPOSECOFFEE.COM

franchise *buffet*



먹고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기쁨

Sushi-Roll & Salad Bar

정성 가득히 늘 최선을 다하는 쿠우쿠우입니다.

고객센터/가맹문의 1577-4841





미식 기행, 답을 찾다 ...

점포별 매장전경



[미도인 종로]

[미도인 강남]

[미도인 성수]

[미도인 홍대]

[미도인 여의도]

[미도인 의정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성장한
국내 최대 안경체인 브랜드, 다비치안경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We have all the
Visible Answers
No.1 DAVICH Optical

안경 전문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 안경사 양성

다비치안경의 고객가치 경영연구원은 전문화된 안경사를 지속 육성하기 위한 안경사 전문 교육 기관으로, 안경 업계 최초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자체 훈련 기관으로 승인받았으며 1,724명의 사관 및 공채 안경사를 배출하며 안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주방을 만들어 갑니다.



TOPSONIC NOAS

▶ YouTube 성공의 정석,꾼 / 성공 9단 / 생존의 기술

설거지 때문에 골치 아프신 사장님,
어떤 초음파 세척기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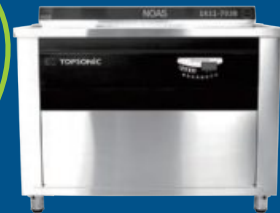
뛰어난
세척력

짧은
세척 시간

긴 수명

저소음

다양한
세척 기능



압도적인 세척력, 오직 탑소닉만이 특허로 인증합니다.



- 국내유일 강력한 24kHz 진동 소자
- 입체형 3D 초음파 발진기
23.5kHz 24kHz 24.5kHz 혼합변조
세계최초특허 제 10-1902545호
- 소음감소 기술 및 진동완충 기능 적용
세계최초특허 제 10-1910183호
- 국내 최고 초음파 분야 기술력을 자랑하는
듀라소닉과 공동특허 획득 및 독점 공급 계약 체결

무상 A/S 10년, 제품 수명 20년, 약속드립니다.

찬물에도 변함없는 강력한 세척력
석식, 불판, 뚝배기, 숯밥냄비 등
까다로운 식기 완벽 해결
수압식 세척기와 겸용 NO!

담갔다가 건지면 끝나는 3분 설거지
각종 기름기, 잔류 농약, 세균 완벽 제거
설거지 직원 필요 NO!

초음파 세척기 구매? 오늘 결정하지 마세요
무료로 5일간 사용 후 결정하세요.

무료사용 / 시연신청 > 방문 상담/시연 > 무료사용(5일) > 구매결정
(불만족시 무료철회)

부담 없이 렌탈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 사용하시다가 세척력 · A/S 때문에 고민이신 분은 상담을 통해
특별 대우 해드립니다.



33떡볶이, 프랜차이즈의 틀을 깨다!



자체 공장 보유
업계 최저 원가율



33만의 독창적인
가맹점 밀착관리 시스템
① 33 DCS ② 1030 CARE



손쉬운 운영 가능
인건비 DOWN 효율 UP

창업문의

080.868.3355

www.success100.co.kr

HACCP 인증을 받은 모기업 (주)산들식품은 20년 이상 웰빙푸드를 연구 · 제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견 식품기업입니다.



(주)아르푸 대표 황은주

아르푸가구는 2000년에 설립한 주문제작 가구 전문 회사 KTA그룹의 브랜드입니다.

KTA그룹은 한국T.A 운영을 기반으로 (주)티오피퍼니처, 국내 및 해외에 직영공장(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소한의 시간 내에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가격,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합니다.
직영매장 아르푸를 통해 직접적인 소통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를 즉시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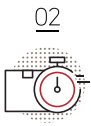
/ 사업분야

- 창 업 가 구 | 프랜차이즈 · 레스토랑 · 식당 · 호프&펍 · 카페 · 스터디카페
- 숙 박 가 구 | 호텔 · 모텔 · 펜션 · 리조트 · 요양시설 · 게스트하우스
- 사 무 가 구 | 사무실 · 중역실 · 회의실 · 접견실 · 강당 · 휴게실 · 탕비실
- 설 계 가 구 | 관공서 · 전시장 · 도서관 · 홍보관 · 컨벤션 · 교육/의료시설
- 가정용가구 | 거실가구 · 침실가구 · 주방가구 · 홈카페 · 홈오피스 · 소품 등

/ 아르푸 서비스



01
업계 최고 전문 상담원
배치로 믿을 수 있는 상담



02
20여년 경력의 국내
제조 공장 보유로 누구보다
빠르게 제조 및 납품 가능



03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
또한 확실하게

ONE STOP
SYSTEM



/ 아르푸가구 납품현장



이여공탕



먹보한우



아비꼬



더벤티



달콤커피



카페온화



홀릭 스터디카페



서울대학교



성공하는 사장님의 치킨 서포터, 양계농장!

**최고 품질의
치킨 가공품을 공급합니다.**



www.chickenfarm.co.kr

<양계농장 대표상품>



버팔로치킨미들윙 버팔로치킨윙스틱 버팔로치킨윙스 리얼치킨가라아게 순살치킨가라아게 통순살그릴치킨 춘천숯판닭갈비 조각정육 (닭다리살)

35년 동안의 치킨가공사업으로 다져진 R&D 경험과 레시피로
좀 더 맛있는 메뉴를 현장에서 심플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ONE-PACK, ONE-SALE, ONE-COOKING 제품을 선보입니다.

양계농장 제품문의 031-988-7779 / joyfull0602@gmail.com

조이폴 농업회사법인(주)

피자먹다 글로벌 진출



태국 1호점
짬쭈리스퀘어점



싱가포르 1호점
PLQ몰점
싱가포르 2호점
313@SOMERSET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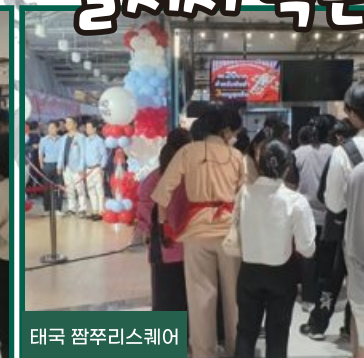


이것이 진짜 1인피자클라스!

줄서서먹는 진짜 1인피자



태국 짬쭈리스퀘어



태국 짬쭈리스퀘어



싱가포르 PLQ몰



싱가포르 PLQ몰



피자먹다

창업문의 02)354-2021

www.eatpizza.co.kr

외식업 솔루션 전문 브랜드 제일좋은솔루션

- ◉ 배달매출분석
- ◉ 트렌드분석
- ◉ ERP
- ◉ 마케팅홍보

"매장에 꼭 맞는 제품으로, 전문가의 설치와 사후관리까지"

everything in the payment **SMART HONEY**

키오스크

포스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우리는 사장님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스마트허니는 10여 년간 외식업과 함께한 (주)제일좋은솔루션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매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심층 분석을 통하여 제안 및 관리해 드리는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카메라로 스캔 ▶▶

문의 1899-1271
www.jjssolution.com

인스타그램



설치사례

blog



공식 홈페이지



새롭게 변화된 김가네

철판치즈불닭볶면

 **김가네**

가맹문의 1588-7187

「외식 대상 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 기술 지원」사업

참여 외식 가맹본부 모집

사업개요

○덜짜고, 덜단 외식 메뉴 개발 기술 지원

지원내용

- 주요 메뉴 및 식재료의 영양성분 분석
- 전문가의 덜 짜고 덜 단 메뉴 개발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
- 개발된 덜 짜고 덜 단 메뉴 판매 지원과 홍보
- 저감 지원 대상 품목

구분	저감 지원 품목	비고
덜 째 외식 메뉴	한식(예:국·탕·찌개, 도시락, 돈까스 등), 분식(예:떡볶이, 만두 등)	가맹점 또는 직영점 1곳 이상에서 시범 판매
덜 단 외식 메뉴	스무디 또는 에이드	

모집 및 지원절차

- 모집규모
- 모집규모: 한식 2개, 분식 1개, 음료 1개 이상의 업체 선발 (가맹점 20개 이상 업체 우대)

모집 및 지원절차

- 지원절차
- 신청(3월) → 서류검토 및 인터뷰(3월)
→ 대상업체 선정(3월) → 사업수행협약서 체결(4월) → 영양성분 분석(4월) → 저감화 포인트 방법 도출(5월) → 저감 메뉴 개발 및 관능평가(6월) → 저감 메뉴 판매 및 홍보(8월~9월) →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판매 성과 분석(9월)

신청 기한 및 방법

- 수행기관: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 신청기한: 2024년 3월 11일(월)부터 ~ 2024년 3월 22일(금)까지
- 신청방법:
참여신청서(붙임) 작성 후 E-mail로 접수
- 신청문의 및 접수: 김운서 팀장
02-2233-4750, ifis20@naver.com

한식 및 분식, 음료 가맹본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51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모집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 업무의 A to Z !!!
슈퍼바이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 교육생을 기다립니다.



모집 요강 * 교육비용 : 150만원(VAT포함)

기간

2024년 06월 08일 ~ 08월 10일 (10주)

시간

매주 토요일 13:00 ~ 18:00 (5H)

대상

-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저 및 임직원
- ◆점포 매니저 및 개인 점포 운영자
-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
- ◆가맹본부 취업 희망자 등

장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강의실 (논현역 6번출구)

모듈 과목

- Module I 슈퍼바이저와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
- Module II 가맹점 진단 및 관리
- Module III 가맹점 매출 및 이익증대 스킬
- Module IV 평가시험 및 팀별 발표와 토의

과정 특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수료증
- ◆강의 교재 및 실습 자료 제공
- ◆슈퍼바이저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료 열람
- ◆성적 우수자 상장 및 상품 제공
-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정보 제공
- ◆미수강 강의 다음 기수 청강 가능
- ◆취업희망자 가맹본부 우선 추천

과정 진행



입학식



조별과제 토론



조별과제 발표



수료식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

브라더스팩토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 국내외 유명 유수의 가맹사업본부, 대기업 물류사에 다수의 식품 대량 공급 데이터를 통한 안정적인 재고운영의 가능성.
- 인프라를 통한 다수의 식품 생산 및 수입을 통한 합리적인 공급의 가능성.
- HIT 식품 개발 경험치를 통한 Hot item OEM, ODM 기획 및 생산의 가능성.

주요 생산 및 수입 식품 :

- 파인애플 아이스, 패션망고 아이스 등 빙과류
- 수산물 원물 및 가공품
- 건어물류
- 축산물 가공품 등



대표이사 남민수



대표영업사원 김상훈

국내외 식품 제조 (OEM) / 수입 / 가맹사업본부, 대기업 물류사 니즈에 맞춘 PB 개발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nonstop으로 전문 해결사들의 노하우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33-4399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 BROTHERS FACTORY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4길 22, 빌딩모노폴 3층



www.songlimpaper.com



100% 천연펄프로 환경친화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최고급 펄프원단을 사용하여 식탁의 문화를 선도하는 냅킨을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품의뢰

컨설팅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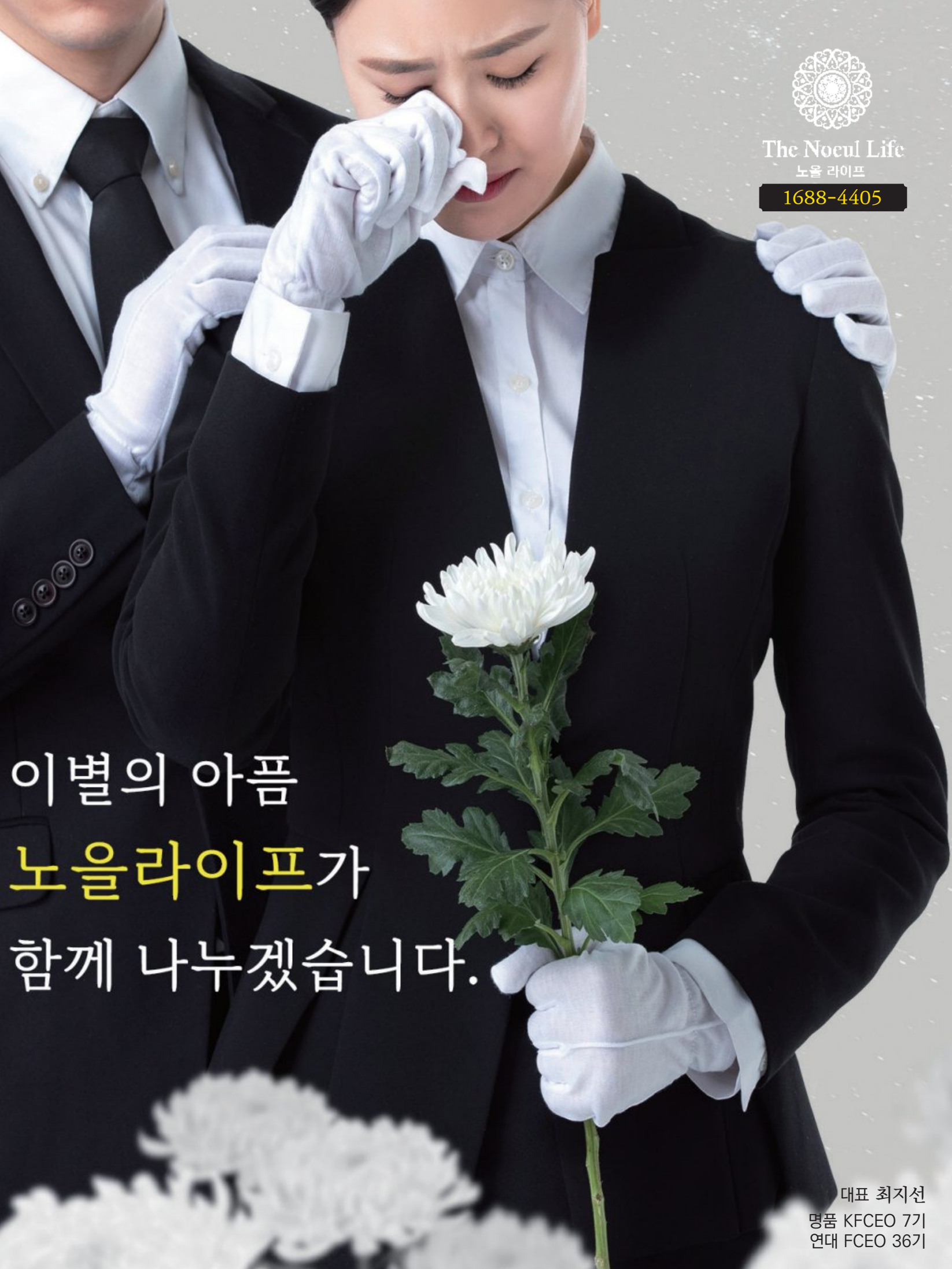
인쇄

패킹 및 적재

납품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63번길7 Tel: 031-977-6810 Fax: 031-977-6825
품목: 인쇄냅킨, 디너냅킨, 해동지, 테이블냅킨, 핸드타올, 점보롤 E-mail: 7booming@naver.com

 송림특수제지



The Nocul Life
노을 라이프

1688-4405

이별의 아픔
노을라이프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표 최지선
명품 KFCEO 7기
연대 FCEO 36기

프랜차이즈 CEO 과정

모집요강



FCP Franchise
CEO PROGRAM

교육일정

교육기간	상반기: 2024년 3월 13일 ~ 6월 26일 (43기) 하반기: 2024년 9월 중순 예정 (44기)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4:00 ~ 18:00
교육장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상남경영원

모집요강

모집정원	60명 내외
모집대상	1) 제조, 유통, 외식 및 서비스업의 CEO 및 임원 2)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대표 3)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
전형방법	온라인 원서접수를 통한 수강능력 심사 후 선착순 입학
원서접수	상남경영원 웹사이트(https://sim.yonsei.ac.kr/)에서 입학지원서 작성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상남경영원 웹사이트 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합격발표	입학지원서 상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보
등록금	4,500,000원 (부가세 없음) - 교재, 간식, 주차, 간담회 등 학사 운영비 일체 포함 - 계좌이체만 가능 (우리은행 126-000091-18-322 (학)연세대학교) - 계산서 발급 가능 (홈페이지에서 계산서 신청서 작성)
문의처	Tel : 02-2123-4266 E-mail : songlim@yonsei.ac.kr Website : https://sim.yonsei.ac.kr/

The Letter from President

021 정현식 협회장 인사말

The Letter from Publisher

023 이진창 발행인 인사말

Cover Story

024 “점주단체 난립, 혐의요청 남발
 산업 망치는 가맹사업법 졸속개정 반대”

026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 안돼”
 거리로 나선 프랜차이즈 업계

030 중대재해법 5~50인 사업장 83만개에 시행
 “식당 사장도 사고나면 범죄자”

Special Report

034 ‘2024년 정기대의원총회’...회원 권익보호 힘쓸 것

036 쉼 산업인 위한 종합박람회로 재도약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040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044 “세계 누빌 K-프랜차이즈 리더 양성” 제13기 KFCEO 개강

046 농식품부, 프랜차이즈산업계 해외 진출 지원

047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Hot Issue

048 건강한 가루쌀 제품, 판매까지 든든하게 지원

049 태국 프랜차이즈박람회(TFBO), 7월11~14일 방콕서 개최

050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4월부터 신청

051 효율1등급 설치한 소상공인, 40% 지원...산업부 750억

052 [기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쟁력은 OS다!



우리 브랜드 선호도는 몇 위일까?

창업도에서 당신의 프랜차이즈 순위를 확인하세요!
 예비 창업자의 선호도에 따라 매주 순위가 업데이트 됩니다

창업도

changupdo.com



프랜차이즈브랜드 누적 조회수 1,200만건
 주간평균 조회수 10만건 돌파!
 대한민국No.1 창업정보 플랫폼, 창업도

대표전화 : 02.556.7889

신뢰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프랜차이즈월드
Franchise
 WORLD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Organ News

- 054 공정위, 자연이자 관련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방문
- 055 가맹사업분쟁조정 605건...손해배상의무 부담 132건
- 056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보호
- 057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 058 [기고] 'K-프랜차이즈' 청룡의 기상을 받아 세계로

People & Company

- 060 김진성 컴포즈커피 대표
- 064 박시연 아소비 대표

Brand Highlight

- 066 명륜진사갈비·리맥스코리아·다비치안경
- 071 자담치킨·(주)지호·킹콩부대찌개
- 072 굽네치킨·채선당·본죽&비빔밥
- 073 네네치킨·암샘김밥·이디야커피

Association News

- 084 협회분과위원회, '청룡의 해' 맞아 회원사 단합 위한 본격적 활동 나서
- 086 제43기 연세대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FCEO) 입학식 개최
- 087 지회소식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090 신규회원/교육일정
- 096 구독안내

Column

- 074 컨설팅 - 이경희 라이온기업 육성? 골목상권 미래
- 076 마케팅 - 장재남 소비자 건강 가장 먼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 078 법률 - 안철현 순간의 선택을 위한 기준
- 080 세무 - 최인용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마스터 프랜차이즈보다 지분투자가 유리한 3가지 이유
- 082 노무 - 이금구 프랜차이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며... 반복되는 규제 강화의 고리 끊어내야 할 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현식

오랜 추위를 뒤로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여전히 고물가와 고비용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도 어려운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날씨가 풀리면서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점차 늘어난다면 겨우내 움크려있던 우리 산업도 활기를 띄지 않을 까 기대해봅니다.

아직 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지난 2월 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회 앞을 찾아 가맹사업법 조속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으로 통과될 위기에 놓여 절박함을 호소하고자 하나 돌씩 나섰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부작용이 매우 커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데, 정치적 논리로 갑자기 통화가 추진되면서 산업인들의 위기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는 이날 부디 시간을 갖고 협의체를 구성해 균형잡힌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마쳤습니다.

가맹점사업자들이 집회나 기자회견을 여는 일은 적지 않으나, 본사들이 직접 국회까지 찾아가 호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최근 업계에는 가맹사업법 규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법 규제만 60여 건에 달합니다.

당장 지난해 말에도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올해 7월 2일부터는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곧 확정됩니다. 22년 하반기에는 광고·판촉 시 50%~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전동의제가 시행돼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맹지사에게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최저수익이나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가맹본부에 의무와 부담을 늘리는

규제들뿐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소비 문화와 고용, 창업 활성화 및 안정화, 기업의 성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력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동반성장도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는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정부와 국회, 언론은 본사를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 일방적으로 짓누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맹본부의 경영이 위축되면 가맹점사업자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일탈행위와 위법사례를 단속하여 엄벌하면 될 것이지, 아예 본사 전체를 억누르는 식으로 법·제도를 매번 뜯어고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사의 경쟁력 약화는 곧 브랜드 성장의 정체, 즉 하향평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가맹사업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전망이 어두울 수록 업계에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업계가 활기를 펼 수 있도록 내수를 진작하고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일이 더욱 필요합니다. K-프랜차이즈가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관계는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로잡히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 협회는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국회 집회를 계기로 가맹사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22대 국회에는 지난 20대, 21대의 규제 잔혹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방면으로 산업의 순기능을 알리고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협회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대한 과제입니다. 산업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정 현 식 드림

Franchise World 프랜차이즈월드 Vol.66
The Magazine For You

PUBLISHER

회장	정현식	Chung, Hyun Sik
발행·편집인	이진창	Lee, Jin Chang
협회/사무총장	박호진	Park, Ho Jin

EDITORIAL DEPT

편집국장	이 호	Lee, Ho
취재국장	조인영	Cho, In Young
이사	김태규	Kim, Tae kyu
	조기석	Cho, Gi Suk
특임 기자	김동하	Kim, Dong Ha
	박서진	Park, Seo Jin
기자	김은영	Kim, Eun Young
	신용희	Shin, Yong hee

DESIGN

실장	임재승	Lim, Jae Seung
----	-----	----------------

PHOTO

사진기자	이명철	Lee, Myung Cheol
------	-----	------------------

CORRESPONDENT

대구·경북 기자	정다미	Jung, Da Mee
부산·울산·경남 기자	정미진	Jung, Mi Jin
강원 기자	손준기	Son, Jun Ki
광주·전남 기자	박내연	Park, Nae Yeon
대전·충남 기자	박경원	Park, Kyung Won
전북 기자	고재경	Ko, Jae Kyung
충북 기자	박성희	Park, Sung Hee

CONTRIBUTORS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이경희	Lee, Gyeong Hee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장재남	Jang, Je Nam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안철현	Ahn, Cheol Hyun
법무법인 해 파트너 변호사	조은혜	Cho, Eun Hye
세무회계 성우 대표	서성우	Seo, Sung Woo
노무법인 C&B 대표	이금구	Lee, Keum Goo

CONSULTATIVE COMMITTEE

편집주간	김영인	Kim, Young In
편집위원장	정종인	Cheong, Chong In
수석편집위원	김용순	Kim, Yong Soon



발행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기획/제작	(주)KFN 애드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9 706호(여의도동, 두일빌딩)
대표메일	kfn1991@naver.com
광고문의	02-556-7889
보도자료	Webhard (ID : kfn1991, PW : 1991)
취재·구독문의	02-556-7889 (구독료 15,000원 / 권)
인쇄	(주)근아인쇄
판매대행	(주)성운도서
등록번호	영등포, 마00070

KFA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프랜차이즈월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집지 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e Letter from
Publisher

빈익빈 부익부 사면초가(四面楚歌) 기준 높은 전략 실행할 때다



발행인
이진창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3월호’ 보고서를 보면 이달 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각각 2만3000원(5kg 기준)과 2만4000원(3kg 기준)이다. 1년 전보다 43.9%, 11.2% 오를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2019년부터 3년간 평균치인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51.8%, 34.1% 비싼 수준이다.

사과와 배 가격은 지난해 기상재해 여파로 올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하순 기준 도매가격은 모두 작년 동기의 두배에 이른다. 농경연은 다른 농산물 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오른 가운데 신선과실과 신선 채소 상승률은 각각 41.2%, 12.3%를 나타냈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프랜차이즈의 60~70%를 점하고 있는 외식업의 고충으로 연결된다. 특히 레시피대로 메뉴를 만들어야 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의 경우 식재료 가격 상승은 수익 감소로 연결된다. 그렇다고 판매되는 가격을 올리기도, 식재료를 줄이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로 가득이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워지는게 이유다.

이같은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 압박과 인건비 상승, 임대료 및 금리 인상, 경쟁 심화, 구인난, 에너지 비용 급등 등 부정적 환경은 올해에도 여전하다. 이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기 전망은 밝지 않다.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도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외식업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

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중요시 되는데 가맹본부의 역량이다.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익성을 담보하면서 영속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도 올해 들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하기도 했다. 업계가 국내 가격에 반영해 물가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업계 의견 반영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연일 언론에서는 외식 품목의 가격 인상을 거론한다. 여기에 가맹점주의 집단 행동 관련 개정 법률안도 아직 미해결 상태다. 여기에 배달 앱 독점에 따른 횡포, 배달 수수료도 여전히 고민거리다. 한마디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피아노맨’ 빌리조엘의 말이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그 후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자신의 기준을 높여서 생각해 보자.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전략을 이제는 실행할 때다. **KFN**



지난 2월 2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들이 국회 앞에서 가맹사업법 졸속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점주단체 난립, 협의요청 남발 산업 망치는 가맹사업법 졸속개정 반대”

한국프랜차이즈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졸속 통과 반대 집회 개최

WRITE | 이 호 국장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의 직상정 등 또 다시 ‘일방 처리’를 예고하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강력히 반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정현식)는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상정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에서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 1천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동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

‘K-프랜차이즈’ 미래 가로막는 일방적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결사 저지한다

‘K-프랜차이즈’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관계자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14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황당함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잘못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2건이 지난해 말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에 의해 단독처리되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 2월 26일 기준)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기관으로 인정하면서, 가맹본사로 하여금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점주단체의 숫자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횡수도 제한받지 않고 노사협상보다 더 강한 단체협상의무를 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프랜차이즈산업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끝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복수의 점주단체와의 협상의무로 인해 가맹점주 간에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맹본사와 가맹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상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개정안이 프랜차이즈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효율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본사는 물론 가맹점에도 발생할 것이고, 결국 본사와 가맹점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K-프랜차이즈의 성장 동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관련 산업종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K-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추 수 있도록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의 일방적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희는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21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22대 국회에서 공청회,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상생적 가맹사업법과 더불어 글로벌 프랜차이즈 탄생을 위한 가맹사업진흥법도 함께 개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가맹사업 선진화 위원회
강형준 위원장

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들의 소비 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변, 참여연대 등과 ‘법안처리’

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냉혹히 심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2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무위를 소집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다만 총선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가능한 만큼 여전히 재시도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KFI**



지난해 9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 안 돼” 거리로 나선 프랜차이즈 업계

“규제 일색 법 제도, 더이상 묵과 어려워...근본적인 인식 개선 필요”공감대

WRITE | 이 호국장

오랜 기간 고물가와 고비용, 경기침체의 3중고를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나날이 강력해지는 가맹사업법 규제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수 십여 건의 가맹사업법 규제가 발의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들을 겨냥한 조사와 제재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급기야 국회에서 가맹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착한 프랜차이즈 캠페인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선한 영향력이 각광받은 지 불과 2년여 만에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이 난무하고 국민과 언론의 질타가 되풀이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 협의요청에 불응시 처벌” 실현되나 ◇21대 국회, 규제법안 무더기로 쏟아져

21대 국회는 2020년 6월 8일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개정안을 시작으로, 총 61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 가맹본부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외식 가맹본부들이 고물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필수품목 관련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필수품목 규정을 강화하거나, 필수품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대다수다. 이 중 유의동 의원이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어 올해 7월 2일 시행 예정이다. 거래조건 변경시 점주들과 협의를 강제하는 동법 시행령도 조만간 확정돼 함께 시행된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도 대표적인 규제 강화 사례다. 22년부터 가맹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50%·70% 이상 받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업계의 광고·판촉이 크게 위축됐다.

◇가맹점주단체 협의개시의무화, 날치기 통과에 직 회부 시도까지 파행 거듭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개시의무화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만도 십여 건에 달한다. 이 중 9개는 정무위원

“국회에서 가맹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착한 프랜차이즈 캠페인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선한 영향력이 각광받은 지 불과 2년여 만에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셈이다.”

장안으로 통합, 지난해 12월 정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날치기 통과된 이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 위원장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려는 시도가 감지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국회 집회를 개최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 규제와 관련된 개정안으로는 ▲시공사 특정 금지 ▲계약갱신청구권 20년으로 연장 또는 기한 삭제 ▲가맹본부 직영점 설치 제한 강화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휴업권 부여 ▲허위·과장



강형준 가맹사업선진화위원장이 지난 2월 26일 국회 집회에서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한상호 영산대 교수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 제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공개 ▲광고·판촉시 가맹본부 부담 50% 이상 의무화 ▲가맹지사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가맹점사업자 최저수익 보장 등이 있다.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브랜드 직권조사 행보

지난해 민·당·정 협의체에서 필수품목 개선대책을 내놓은 공정위는 3월 들어 다가올 총선과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를 강력히 압박하는 모양새다.

3월 5일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만인 3월 12일에는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와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역시 필수품목 지정 실태나 판촉비용 전가 여부 등을 들여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굽네치킨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곳은 본사가 사모펀드 소유거나 사모펀드 투자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bhc는 MBK파트너스, 메가커피는 우원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

“

3월 5일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만인 3월 12일에는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와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

스, 샐러디는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4곳의 가맹본부를 조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 타 사모펀드 소유 브랜드로 직권조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SPC 과징금 647억원 및 경영진 고발 법원서 잇따라 패소

공정위가 통행세를 이유로 지난 2020년 SPC그룹 계열사들에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최근 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31일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샤니, 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 상당 부분과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경영진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또한 2월 2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공정위와 검찰은 즉시 항소했지만, 업계에서는 역시 공정위가 무리하게 SPC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고, 실제로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법규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식 물가 급등이 가맹본부의 폭리 수취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만큼 총선을 전후로 당분간 공정위가 업계를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 제도 개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본사-가맹점 관계, 신뢰와 상생으로 재정립해야”

업계에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은 데도 매년 규제 강화로 씨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근본적

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분위기다. 국회와 정부, 언론, 국민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가맹본부에서 찾지 때문에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외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가맹사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강형준 (☞)명륜당 대표이사가 맡고, 대형·중견 이상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

협회는 위원회 발족 배경에 대해 “이전에는 규제 법안·제도에 대체로 순응하면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자발적으로 상생과 법 준수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소프트한 대응에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제 규제 강화 시도가 경영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러 더이상 가만히 있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례없는 국회 집회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훨씬 막강한 영향력으로 업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배달앱을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법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는데, 이대로라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22대 국회에도 똑같은 규제를 겪고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위원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규합하고,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에 나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신뢰와 상생의 관계로 재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77]



지난해 12월 14일 단체협상권 법안이 기습통과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 정무위원회]



지난 1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법, 5~50인 사업장 83만개에 시행 “식당 사장도 사고나면 범죄자”

1, 2월 임시국회에서 1년 유예안 끝내 불발...소상공인 많은 외식업계 대응책 마련 분주

WRITE | 이 호국장

지난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간의 유예를 마치고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본격 시행됐다.

그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와 여당, 정부는 대다수 대사업장들의 준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법 시행시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법 시행을 1년 이상 추가로 늦춰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있던 1월 임시국회에서는 물론이고, 시행 후인 2월 임시국회에서도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외식업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떨어졌다.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업주들이 태반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쟁 끝 유예 불발...외식업계 ‘발등에 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이다.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한이 올해 1월 27일부로 종료되고 1,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가 불발되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누구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다.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고, 총선 후 4~5월 임시국회는 관심도 제고로 법안 추가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원 구성까지 2달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때 가서 1년 유예안이 처리된다 해도 사실상 실익이 없다.

이번 시행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대상 사업장은 83만 7천여 개로 전체 사업장의 24%에 달하며 종사자는 800만여 명에 이른다. 아직도 50인 이상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볼 때,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당분간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고의 대상이 근로자이고,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공중이용시설 사고 ▲제조물·원료 사고(식중독 등) ▲공중교통시설 사고(대중교통 등) 세 가지 유형에서 소비자, 이용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사전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나,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사고에서 음식점·PC방의 경우 바닥면적 100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이 아닌 곳만 해당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별다른 예외가 없다. 특히 식중독과 같은 원료·제조물 사고는 식당, 어린이집 등 모든 종류·규모의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점이 특별히 주의

“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사망 사고가 아닐 경우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타법에서는 고의·중과실의 경우 면책요건을 부여하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면책규정이 없다.

”

할 점이다.

처벌이 적용되는 사고는 각각 다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1년간 동일요인에서 걸린 직업성 질병) 3명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동일)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의 경우다.

형사처벌의 내용은 둘 다 동일하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사망사고가 아닐 경우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타법에서는 고의·중과실의 경우 면책요건을 부여하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면책규정이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준수 시 면책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여부다. 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평소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지난해 10월 5일 제55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부스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본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 위반 사건 총 510건 중 현재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14건, 실행(징역 1년에 벌금 1억원)을 받은 사건은 한 건인데, 이 곳은 수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산업재해 이력이 있다.

외식업종에서 사고 발생 빈도가 크게 높지 않다는 점은 위안이다.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5~49명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총 800명인데 이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는 44명으로 전체의 5.5%였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사고 만인율'에서도 모든 사업장 평균은 1.10명인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33명이다. 제조업은 1.27명, 건설업은 2.16명인 점을 볼 때 타 업종보다는 상황이 낫다.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는다. 근로계약을 맺으면 모두 상시 근로자다. 다만, 현 계약의 총 수가 상시 근로자 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한 달을 기준으로 연인원(延

人員), 즉 날마다 근무한 인원을 모두 합한 수효를 운영한 날, 즉 가동일 수로 나눈 것이 상시근로자 수다. 1일 평균 근로자 수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외식업의 경우 통상 주말과 평일의 근로자 수가 다르다. 평일 4명, 주말 5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한 달간 총 28일간(주말 4회) 운영한 경우를 보자. 평일의 연인원(4명*20일)과 주말의 연인원(5*8일)을 합친 뒤 가동일 28일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 수가 4.28명으로 계산된다. 다만,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라도, 가동일 수 중 5인 이상인 날이 더 많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외식업 맞춤 가이드라인 절실” 한 목소리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고,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에도 외식업 등 소상공인 다수 업종에 대한 특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작업환경 얼마나 위험한가?	☐	☐	☐	☐	☐
사망사고 위험요인 관리하나?	☐	☐	☐	☐	☐
구체적인 안전방침·목표 있나?	☐	☐	☐	☐	☐
안전보건 조직·관리자 있나?	☐	☐	☐	☐	☐
안전보건 예산 있나?	☐	☐	☐	☐	☐
사업장 위험성평가 노·사가 함께 실시하나?	☐	☐	☐	☐	☐
위험요인 관련 근로자의 의견 제시 자료로용가?	☐	☐	☐	☐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툴박스미팅) 실시하나?	☐	☐	☐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충분한가?	☐	☐	☐	☐	☐
비상상황 대비한 매뉴얼 마련하고 정기훈련 실시하나?	☐	☐	☐	☐	☐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했나?	☐	☐	☐	☐	☐
반기 1회 이상 전체 간전관리체계 정기점검·평가하나?	☐	☐	☐	☐	☐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공 중인 자가진단표 항목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중이다. 현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면 점수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안내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가진단표 자체가 외식업종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산업안전 대진단의 자가진단은 총 12개 문항으로, ▲안전보건 예산 여부 ▲안전보건 조직·관리자 여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여부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정기훈련 여부 등 소규모 사업장과 동떨어진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외식업계에서는 적어도 외식업 현실에 맞는 안전보

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이라도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위험성 평가'라도 꼭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문서로 남겨놓는 것을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채용·지정 의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협회는 3월 21일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세미나장에서 업계 전문가인 이금구 법무법인 C&B 대표노무사를 모시고 업계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특별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에 업계 현실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FN**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재도약과 협회 회원 권익 보호 힘쓸 것

한국프랜차이즈 '2024년 정기 대의원총회'...김인규, 나명석 신임 수석부회장 취임

WRITE | 김은영 기자



지난 2월 1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24년 정기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2월 15일 산업의 재도약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2024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하남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매입을 맞아 경기도 하남시 하남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됐다. 대의원들은 김인규 ㈜다비치안경제인 회장,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 신구 수석부회장 선임,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 정관변경, 대의원 사임·선임 안을 의결했다. 또, 하남사무실 매입, 지난해 사업결과와 올해 사업계획, 최

근 업계 현안을 보고받고 분과위원회 안내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협회장배 등반대회·골프대회 개최 ▲제22대 총선 정책건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 ▲3개국 해외진출 지원 사업 ▲공동방어상



(왼쪽부터) 박효순 수석부회장, 정현식 협회장, 김인규 수석부회장, 나명석 수석부회장

표권 활성화 ▲제56,57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개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재직자 무료교육 제공 ▲제25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개최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K-프랜차이즈' 활성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보고했다.

◇회원사 참여 특별위 출범...가맹사업 법·제도 환경 개선 총력

협회는 21대 국회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필수품목 개선 대책 등이 통과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등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업계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됐다고 보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회원사와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강형준 ㈜명륜당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월 26일 국회 앞 가맹사업법 졸속개정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후 22대 국회 원구성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업계의 인식 개선과 대관·언론·학계 네트워크 강화를 모색하여 우호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연착륙 협조

협회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100개 지역 한식점업 주방조리에 시범도입되는 외국인 고용허

가제(E-9 비자, 비전문취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와 적극 협력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올해 4월경 신청을 접수해 6~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사전에 회원사 및 소속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와 1차 상담, 교육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정부가 하반기 결과를 점검하여 추후 업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협회는 올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K-프랜차이즈 위상 널리 알려 신성장동력 발굴

협회는 고물가와 고비용, 내수 침체 등 국내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 회원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최근 해외진출 크게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기존 진출국들에서 스펙트럼을 넓혀갈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중기청, 스리랑카 상공회의소 등과 국내 기업의 진출을 협의 중이며, 올해 5월 WFC·APFC 총회 개최국인 말레이시아프랜차이즈협회와도 회원사들의 말레이시아박람회 참가를 할인지원할 계획이다. 또, 진출 희망기업들에게 정보, 컨설팅 등 지원을 늘리고 상반기 중 대표단을 꾸려 현지를 방문해 실질적 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K77]

전(全) 산업인 위한 종합박람회로 재도약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3.21~23 서울 코엑스 C·D홀서 350개사 800개 부스 역대 최대 규모로 성대히 개최

우수·유망 브랜드 ‘창업전’과 우수 파트너사 ‘산업전’ 확립

비즈·투자매칭, 세미나 등 풍성한 구성

WRITE | 김은영 기자



지난해 10월 '2023 하반기 제54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하는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가 예비 창업자와 가맹본부, 협력업체까지 모든 산업인들을 위한 종합 박람회로 업그레이드돼 3월 21일(목)~23일(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는 역대 가장 많은 350여개 업체, 800여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유망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하는 ‘창업전’과, 창업 필수 협력업종을 총망라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산업전’을 합쳐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종합 박람회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3월 '2023 상반기 제54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IFS 비즈니스 매칭상담회

◇‘창업전’과 ‘산업전’으로 종합박람회 면모 ‘확립’

‘창업전’에서는 최근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 증가로 오프라인 소비 수요가 회복되는 흐름에 맞춰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해 3만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창업 모델들을 선보인다.

‘산업전’에서는 ▲토스플레이스 ▲제로아이즈 ▲비버웍스(이상 주문·결제) ▲서빙고 ▲레인보우로보틱스 ▲보글봇(이상 로봇·자동화기기) 등 유수의 파트너사들이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테이블 오더, 최신식 POS, 서빙·조리 로봇, 무인점포 운영 시스템 등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창업 모델들을 홍보한다. ▲인테리어 ▲주방·설비 ▲보안 솔루션 ▲무인 시스템 ▲법률·노무 컨설팅 ▲경영관리 ▲식자재·공산품 유통 등 점포 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협력업체들도 관람객들과 가맹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랜드 추천 및 상담 주선을 제공하는 창업레시피, 최고의 브랜드를 유기적으로 배치한 탑 브랜드 리더십 존, 글로벌 브랜드 존 등 박람회 고유의 노하우가 집결된 프로그램들이 관람객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 바이어, 본사, 파트너사 간 홍보·투자·매칭 프로그램 신설

참가사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챔피언스 마켓’ 프로그램은 참가 협력업체들에 자사 제품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대형 라운지와 프레젠테이션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한 피칭 스튜디오를 제공한다. 협력업체들은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등 대형 유통 바이어 및 가맹본부들에 사업과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한 자리에서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매칭 이후 이어지는 오찬·만찬 등 네트워킹 행사로 가맹본부 및 대기업 유통사 구매 담당자들과 관계를 강화할 기회도 마련된다.



지난해 3월 '2023 상반기 제54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박람회 현장에서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최신 제품·기술·서비스 제공 기업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IFS 챔피언스 매칭' 프로그램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IFS 챔피언스 매칭'은 가맹점 관리와 매장 운영에 로봇,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디지털 솔루션을 모색하고, 배달용기, 주방기기, 인테리어 등 새로운 납품처를 찾는 브랜드 가맹본부 및 매장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재무적 투자, M&A 등 투자매칭까지 매칭을 희망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관객·참가사 모두를 위한 풍성한 컨퍼런스

참관객들뿐 아니라 참가사와 업계 관계자 모두에게 유익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도 열린다.

첫 날 오전에는 김성운 에스와이프랜차이즈 대표와 선 응오 VF 프랜차이즈 컨설팅 대표가 프랜차이즈 성장 전략을 강의한다.

이어 오후에는 프랜차이즈 산업과 가장 정책 관련도가 높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에서 직접 올해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와 소통하

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이금구 노무법인C&B 대표노무사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 범위를 넓힌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는 특별 강연을 진행해 많은 산업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둘째날에는 김민수 더맘마 대표, 황성재 엑스와이지 대표, 허진숙 디포인덱션 대표가 푸드테크와 결합된 프랜차이즈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

셋째날에는 정민섭 미도인 대표와 이경희 부자비즈 대표가 다양한 성공 전략과 사례를 제시한다. 또,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업계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해외 K-브랜드 분쟁 사례와 지원사업을 알려 주고, 임재원 고피자 대표, 임영서 죽이야기 대표, 김효섭 푸라닭 실장은 해외진출의 생생한 성공 노하우를 들려주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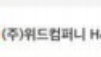
◇“모든 산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할 것”

주최사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 관계자는 “모든 산업인들을 위해 새롭게 태어난 이번

IFS 컨퍼런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 매장 운영자 까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최고의 선택!

D홀 내 컨퍼런스장

Day 1 3월 21일(목)	10:30 - 12:00 (90')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통한 성장전략		에스와이프랜차이즈 김성운 대표 
	13:00 - 14:00 (60')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에서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는 10가지 비법		VF 프랜차이즈 컨설팅 선 응오(Sean T. Ngo) 대표 
	15:00 - 16:30 (90')	2024년 프랜차이즈 산업 정책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김정기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정정희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혜주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김대간 과장
	16:30 - 17:00 (30')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전문가 특별강연		노무법인C&B 이금구 노무사 
Day 2 3월 22일(금)	10:30 - 12:00 (90')	프랜차이즈의 공간을 디자인 경영하는 푸드테크		더맘마 김민수 대표 
	13:00 - 14:30 (90')	푸드테크의 현재와 미래 - 로봇 자동화를 중심으로		엑스와이지 황성재 대표 
	15:00 - 16:30 (90')	지속가능한 외식프랜차이즈를 위한 주방 자동화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포인덱션 허진숙 대표 
Day 3 3월 23일(토)	10:30 - 11:30 (60')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발 전략		미도인 정민섭 대표 
	13:00 - 13:30 (30')	K-브랜드 해외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 지원 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 분쟁대응실 손수용 전문위원 
	13:30 - 14:30 (60')	1등 브랜드를 통해서 배우는 스마트한 프랜차이즈 전략		부자비즈 이경희 대표 
	15:00 - 16:00 (60')	해외 진출 성공 브랜드와 함께하는 해외 진출 워크숍		고피자 임재원 대표  죽이야기 임영서 대표  푸라닭 김효섭 실장 

※본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예비 창업자뿐 아니라 가맹본부와 협력업체들도 3만여 명의 예비 창업자들과 1천여 명의 참가자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는 협회가 주최하고 국내 최대 MICE 기업 코엑스(사장 이동기),

글로벌 1위 전시사 RX Korea(리드엑시비전스코리아·대표 손주범)가 공동주관하며,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특허청(예정) 등 정부 부처가 공식후원한다. 3월 21일(목)~23(토) 3일간 서울 코엑스 C,D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되며, 현장 입장료는 1만원으로, 홈페이지(<http://www.ifskorea.co.kr>) 사전 등록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벤트**

한국프랜차이즈協,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 위상 제고 및 산업인들 사기 진작 위한 기념행사

신년하례식 병행으로 회원사 단합의 장 마련

WRITE | 신용희 기자



제6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및 2024년 신년 하례식 단체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15일 경기도 하남시 하남지식산업센터에서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이하 산업인의 날)을 개최했다.

협회는 12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 제고와 12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 및 격려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산업인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번 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협회 하남 사무실 현판식 및 2024년 협회 신년 하례식과 함께 연계 개최돼 산업인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다시 찾아온 창업 봄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K-프랜차이즈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2024년 신년 하례식을 기념하는 떡 케이크 커팅식

“협회도 올해 업계의 신상정동력으로서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법 제도 및 경영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중장기적 발전의 도약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김정기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의 기념식 축사를 하고 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 11점과 협회장 표창 23점, 감사패 3점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김정기 산업통상자

원부 유통물류과장 등 외빈과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 및 고문단, 업계·학계 관계자 등 총 100명이 참석했다. **KFN**

제6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수상자 명단

구분	규모	표창명	수상자
정부 표창 (단체)	산업부 장관	1	트렌드를 이끈 FC기업가
	중기부 장관	5	우수프랜차이즈 활성화 유공
			(주)유플소프트(프린트카페) 이현우 대표
			(주)웰빙푸드(자담치킨) 나명석 대표
			(주)편앤아이(편비어킹) 김철운 대표
			(주)조은음식드림(오복오봉집) 안광선 대표
			(주)긴자료코(긴자료코) 김인교,원일호 대표
			(주)안다에프앤비(잇샌드) 백승호 대표
	농식품부 장관	2	식품외식산업진흥 유공
	식약처장	3	식품안전 FC기업가
			(주)죽이야기(죽이야기) 임영서 대표
			(주)보배에프앤비(보배반점) 김진혁 대표
협회장 표창 (개인)	국내 가맹 본부	1	자랑스러운 시니어 FC기업가
		1	최고의 FC기업가
		1	창의·혁신 청년기업가
	해외진출	1	글로벌 프랜차이즈
	파트너	2	우수 협력 파트너
	사업참여	2	선도 FC 기업가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안성만 사무총장 (한서대 교수)
	전문가	1	공로패
		2	우수 전문가
	관계자	3	감사패
			법무법인 KLF 김선진 변호사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이사
	박람회 참여	9	'2023년 박람회 그랜드슬램'

한국프랜차이즈協,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정부 표창)



산업부장관 표창 - (주)유플소프트



농식품부 장관 표창 (주)보배에프앤비



농식품부 장관 표창 - (주)죽이야기



식약처장 표창 - (주)와식전문기업제이케이



식약처장 표창 - (주)이루에프씨



중기부장관 표창 - (주)긴자료코, (주)웰빙푸드, 김정기 산업부 과장, (주)편앤아이, (주)조은음식드림

한국프랜차이즈協,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협회장 표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 장순옥 (주)장수산업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 강형준 (주)명륜당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 양진호 (주)엔켓 대표(대리수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 심정훈 (주)정진푸드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 황은주 (주)아르푸 대표



공로패 - 안성만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사무총장(한서대 교수)



공로패 -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



공로패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감사패 -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감사패 - 이진창 (주)KFN에드콤 대표



감사패 - 김상훈 바른씨엔에스(주)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2023년 박람회 그랜드슬램)
- 한태원 (주)도들샘 상무, 김성윤 (주)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
배영미 (주)일영이푸드 대표, 오몽석 (주)꿈을 실현하는사람들 대표

“세계 무대 누빌 K-프랜차이즈 리더 양성” 제13기 KFCEO과정 개강

한국프랜차이즈協, 53명 신입 원우와 입학식 개최

“높은 역량과 리더십으로 해외진출 활성화 이끈다”

WRITE | 김은영 기자



지난 3월 4일 서울 여의도 FKI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KFCEO 입학식 단체사진

3월 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부자비즈(소장 이경희 KFCEO 주임교수)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후원하는 협회 공식 <제13기 KFCEO(K-Franchise CEO) 교육과정>이 성황리에 개강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정현식 협회장, 손석우 교육위원장, 강석우 상근부회장, 전병진 KFCEO 총동문회장 등 협회·총동문화 임원진

과 53명의 13기 신입원우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정 협회장은 “우리 업계는 현재 가맹사업법 규제 강화 및 경영환경 악화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신입 원우들이 본 과정을 통해 차세대 K-프랜차이즈 리더로 거듭나 해외진출이라는 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맘스터치 창업 신화의 성공 스토리와 다양한 노하우를 원우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전병진 총동문회장

에게 아낌없이 들려주며 소통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13기 원우들도 입학식과 저녁 만찬을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육 과정과 총동문화 및 협회를 소개받으면서, 6월 3일까지 14주간 함께 할 교육과정 전반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KFCEO 과정은 지난 2014년 협회가 출범시킨 공식 CEO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FKI타워에서 14~18시에 진행된다. 성공 프랜차이즈 CEO 강연, 학계·업계 전문가 특별강연, 기업 탐방, 1박 2일 워크숍, 해외 졸업여행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고, 이번 과정에 신설된 매주 1시간 가량의 심화포럼과 협회 행사를 연계해 정보 공유 및 컨설팅도 강화했다. **KFN**



이경희 주임교수

농식품부, 프랜차이즈산업계 해외 진출 지원

정보 공유 워크숍·상담회 개최

WRITE | 김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월 1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방문, 물가동향 등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협회 관계자는 세계·외국인력 고용 개선 등 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일부 가격 인상 업체도 있으나, 상당수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원가 절감 등을 통한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조기 정착과 프랜차이즈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외식업 현장 고충이 많았던 만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외에 해외 진출 우수기업 정보 공유 워크숍(6월), 해외 구매업체 초청 상담회(11월) 등을 개최,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외식 협·단체와 정례 소통을 강화해 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기울이겠다”면서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도 외식기업과 함께 물가 안정, 경쟁력 제고 방안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케이(K)-푸드 수출을 위한 사업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75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수출기업들 지원에 적극 나선다. 올해 농림수산물 수출지원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17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aT는 해외 권역별 특성에 맞춘 시장개척, 유망품목 발굴, 중소 수출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예산집행으로 연초 수출확대 동력을 마련하고 수출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T는 또 펫푸드, 펫헬스케어 용품 등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식품 전후방산업 'K-푸드 플러스' 분야로 aT는 오랫동안 축적된 농식품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새로이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KFN**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WRITE | 김은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했다.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디조콜릿커피앤드, 탐앤탐스, 빼다방, 커피베이, 이디야, 더벤티, 폴바셋, 달콤, 감성커피, 파스쿠찌 등 17개 업체다. 패스트푸드점은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등 5개 업체다. 제과업체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대표 및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자발적협약 참여업체 21곳 중 갱신 희망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해 총 24개 업체가 참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방안'

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일회용품을 자율적으로 감량한다는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하고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하는 주요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감량·재활용 촉진 및 홍보 등 실천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음료가격 할인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감량 실천(캠페인)과 길거리 컵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도 기대된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 한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행동유도(넛지)형 감량 운동(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발적협약에 따른 자율감량 성과를 분석해, 우수사례를 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단속 위주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로 일회용품 자율감량 체계(패러다임)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FN**

건강한 가루쌀 제품, 판매까지 든든하게 지원

농식품부, 면류·빵류·주류·제과류 등 7개 업체 선정

WRITE | 김은영 기자



‘정확한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가루쌀빵 베이커리를 방문해 진열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루쌀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2024년 ‘가루쌀 제품화 판로지원(패키지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의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부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가루쌀 제품화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10개사가 면류, 빵류, 제과류, 프리믹스 등 다양한 품목군에서 총 47종의 가루쌀 신제품을 출시했다. 올해는 가루쌀 제품화지원사업 대상자를 외식기업으로까지 넓히고 작년에 가루쌀 제품을 개발한 식품기업과 기존의 가루쌀을 활용하던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판매 촉진을 지원한다.

지난 사업 공모 기간(1.12.~1.26.) 동안 총 19개 업체가 판로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각 업체별로 수립한 가루쌀 제품의 판매·홍보 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가루쌀 제품의 양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7개 업체를 선정했다.

가루쌀 라면을 출시했던 ㈜하림산업과 함께 미듬영농조합법인, 라이스베이커리, 브레드세븐, 흥운베이커리, 플래티넘 맥주, 농협식품이 올해 판로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판매 지원 예정인 가루쌀 제품은 면류(하림산업), 빵류(미듬영농조합법인, 라이스베이커리, 브레드세븐,

흥운베이커리), 주류(플래티넘 맥주), 제과류(농협식품)이다.

향후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각 제품의 판매기회전, 온·오프라인 광고,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제작·방영비, 온라인 판매 판촉 활동 등을 지원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하림산업은 소비자평가에서 받았던 소화가 잘된다는 장점을 살려 소비자들의 ‘건강한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제과·제빵 업체는 가루쌀 전용 매대 설치,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가루쌀 빵, 과자의 소비자 체험소비를 진행한다. 주류업체인 ‘플래티넘 맥주’는 사회 누리망(소셜 네트워킹)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가루쌀 맥주 시음 행사 등을 진행, 가루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는 쌀 적정생산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식품기업을 지원해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개발했다”라며 “올해는 전민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균일한 품질의 가루쌀 원료를 식품기업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출시된 가루쌀 제품의 의미있는 판매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요즘, 소비자들도 가루쌀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애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77]

태국 프랜차이즈박람회(TFBO), 7월 11일~14일 방콕서 개최

농식품부, 면류·빵류·주류·제과류 등 7개 업체 선정

WRITE | 김은영 기자



제 20회 태국 프랜차이즈 박람회 (Thailand Franchise & Business Opportunities)와 제18회 태국 식품 및 외식산업서비스 박람회(Thailand Retail, Food & Hospitality Services)가 2024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태국 방콕 BITEC 전시장에서 동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식품산업의 선두주자로 아세안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다. 프랜차이즈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전시하고 있으며 동시 개최되는 태국 식품 및 외식산업 서비스 박람회는 식품과 외식산업 서비스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행사다.

태국 프랜차이즈 박람회(TFBO)는 식품박람회(TRAFS), 아세안 소매업 박람회(ASEAN RETAIL), 방콕 아시아 주류 박람회(Pub & Bar Asia)와 동시 개최된다. 식품, 프랜차이즈, 외식산업, 소매업, 주류, 관련 기기 등을 한자리에서 아우르는 독보적인 B2B전문 박람회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에는 요리 경연대회, 라이브 바, 각종 컨퍼런스&포럼, 외식산업 관련 세미나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외식산업 최신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태국에서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는 식품 및 음료, 제빵 및 커피 체인이다. 특히 태국 커피와 이국적인 맛을 조화롭게 혼합한 독특한 카페는 현지인과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태국의 젊은 MZ세대 사이에서 글로벌 OTT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디저트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해 한국의 이색적이고 다양한 디저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태국은 글로벌 팬데믹 이전 연간 38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다. 태국 시장에서 히트를 친 상품은 아세안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타코벨, 스타벅스 리저브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태국을 아세안 시장 테스트마켓으로 선정했다.

아이피알포럼 관계자는 “태국을 교두보로 아세안 시장 진출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네트워크를 태국 프랜차이즈 박람회(TFBO) 또는 태국 식품박람회(TRAFS)서 발굴하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77]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4월부터 신청

이정식 장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양해각서(MOU) 체결

WRITE | 김은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체류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종에 대해 정부가 4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점은 주요 100개 지역의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업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건물청소와 주방보조만 시범 운영한다.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작년 12만명, 올해는 16만5000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 아울러 6개월 동안 7개의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산업계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E-9 도입 규모는 5만5000명 확대됐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한도도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비수도권 뿌리증진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7개 업종이 고용허가 대상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규모와 업종·직종·국적 등 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입 확대와 체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업종별 주무부처도 지역과 산업에서 각각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기존 중앙-지방(광역) 협의회 의 논의 구조를 확대해 관계 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체가 모두 참여하는 외국인력(E-9) 정책 관련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앙부처-업종 협·단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정식 장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 교육·훈련,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등 체류 지원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찾고, 중앙-산업-지역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KFN**

효율1등급 설치한 소상공인, 40% 지원...산업부 750억

내달 25일부터 접수 시작...LED 신규설치도 70%

WRITE | 김은영 기자



외식업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에너지 효율 1등급 냉장고와 세탁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새롭게 설치하면 구입비용 4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75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월 2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냉난방기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이다. 품목별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하지만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160만원씩, 세탁기와 건조기는 80만원씩 한

도 내에서 가능하다. 4개 품목 구매시 지원금은 최대 480만원이다.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하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요구된다. 희망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과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 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구매한 경우도 소급 적용되며, 사업은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열과 공기열 히트펌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공사가 필요한 설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도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고 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을 개선하며 체감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FN**

◦ (지원조건) 설비설치비 70% 이내(부가세 제외)

구분	다소비설비*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대상업종	숙박업, 목욕업 등	슈퍼마켓, 편의점, PC방, 식당 등
지원한도	사업장당 최대 2억 원	점포당 최대 3천만 원

* 수열/공기열히트펌프 설치 시 사업장 당 최대 2억 원 지원(히트펌프 및 다른 품목을 포함한 한도)
히트펌프 미설치 사업장은 사업장 당 3천만 원까지 지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쟁력은 OS다!

WRITE | 임영태

최다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도·소매업종의 편의점이나 외식업종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바게뜨, 서비스업종 세탁편의점 크린토피아 등 다점포에 성공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공요인(Service Profit Chain)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독보적인 OS(운영체제 : Operating System)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으면 다점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RP(전사적자원관리)와 연계되는 편의점의 독보적인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공하는 냉동생지(Frozen dough), 크린토피아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세탁 및 다림 서비스 등이 바로 이들 브랜드의 독자적인 OS다. 이렇게 독보적인 OS를 보유하면 결국 가맹점 만족도로 이어져 가맹본사는 물론 매장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의 만족까지 이어진다. 가맹점 만족의 출발점 즉 고객만족은 ▶고객충성도 ▶가맹점 수익증대 ▶가맹점 만족 ▶가맹점 충성도 ▶가맹본부 수익 기여 ▶가맹본부 직원 만족 ▶가맹본부 직원 충성도 ▶가맹점 고객서비스에 전념 ▶최종 소비자인 고객만족으로 이어져 여성이나 시니어들까지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OS라고 하면 단연 애플사가 스마트폰에 적용하고 있는 iOS를 얘기한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만의 운영 체제를 확보하고, 혁신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수많은 애플 팬을 거느리는 화려한 애플 신화를 만들어냈다. OS의 사전적 의미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해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의 OS는 애플의 iOS나 삼성·LG·HTC 등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OS가 있다면 데스크탑 OS는 단연 윈도우를 꼽는다. 만일 여러분이 윈도우라는 OS가 없었다면 재미난 게임 프로그램이나 문서 프로그램을 쉽고 편리하게 작동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오늘날처럼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휴대폰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마다 운영체제가 달라 개별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독자적으로 '바다'라는 OS를 개발했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개방형 플랫폼인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 안드로이드의 앤디루빈 부사장이 안드로이드OS를 처음 만들어 구글에 넘기기에 앞서 M&A를 위해 삼성전자를 방문했었다. 그는 삼성에 인수를 제의했다가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구글에 회사를 팔고 구글 부사장으로 재직 후 퇴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너무나 큰 실책을 한 것이다. 당시 구글은 작은 회사인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하여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와 기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풍부하고 통합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많은 국가들이 이 안드로이드OS를 이용하여 따라 가액의 로열티 수입 외 애플처럼 인앱 수수료는 물론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OS도 마찬가지다. 많은 브랜드들은 애플처럼 독자적인 OS가 있고 안드로이드 OS와 같이 아웃소싱(외주)방식의 OS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후발 주자들의 경우 어설픈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구축한 아웃소싱 형태의 OS를 채택하고 있으며 업력이 오래된 브랜드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에는 예비창업자들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OS를 확인하고 브랜드를 선택하는 추세다. 이들은 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통해 인접 가맹점의 방문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창업 컨설턴트들의 자료를 받아 이를 확인하기도 한다. 물론 3년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통한 본부의 수익성이나 폐점률 등의 브랜드 안정성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워낙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방설비(자동·반자동 유무) ▶조리

방법(편리성) ▶메뉴 종류와 원재료 종류(숯자) ▶매장 내 고객 주문방법(키오스크, 테이블오더 탑재 유무) ▶고객 배달 주문방법 및 배달매출 통합관리(본사 자체앱 제공유무, 민간 배달앱, 공공 앱) ▶본사 및 매장근무자 근태관리 시스템(급여 시스템과 연동) 등과 같이 주로 매장 운영에 따른 편리성이나 근무자들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사가 보유한 OS가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시스템 고도화된 OS가 장착되어 있을 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적은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원재료비가 매출액에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당장에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예로 편의점(CVS)의 시스템을 이해하면 된다. 지금은 없어진 구멍가게와 편의점의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그다지 자주 구매하지 않은 일회용 면도기를 하나 사려고 구멍가게에 들렀다고 하자. “면도기가 있어요?” 가게 주인은 대충 어디쯤을 가리키며 찾아보라 한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결국 가게 주인과 함께 한참 만에 구석 어디선가에서 구매품을 찾았다. 그런데 얼마인지 가격조차 모른다면 어떨까.

편의점에서의 동일한 상황으로 비교해보자. 하루 전에 입사한 아르바이트인데도 진열하는 상품의 지정 장소가 있기 때문에 판매 제품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산대에서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혀 정확하게 계산한다. 이 때 일정 수량 이상이 판매되면 최소구매량(MOQ) 단위로 매장에서 자동으로 본사에 주문서가 보내지며 가맹점의 수익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하여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수도광열비, 각종 수수료까지 관리가 된다. 또한 본사가 지정한 유통경로가 아닌 자점사입한 품목도 걸러지며 심지어 유통기한(소비기한) 도래할 상품까지도 정확하게 바코드를 통해서 잡아낸다. 한마디로 OS의 끝판인 셈이다.

필자가 예비창업자에게 OS가 탑재된 브랜드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고도화된 시스템이란 가맹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맹점 만족도를 넘어 가맹점의 충성도를 높여 준다. 하루 전에 입사한 직원이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은 매장에서 많은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가맹점주에게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업력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오래된 브랜드보다 강력한 OS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의외로 많다. 반면에 본부의 운영체제가 아예 없거나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시스템 통합(SI)을 하지 못해 개별 데이터를 별도로 사

용하여 엑셀로 작업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전가되어 복잡한 공정까지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러한 고통은 결국 폐점으로 이어져 가맹사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OS를 탑재하여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자.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사례이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를 무한으로 제공하면서 초기 브랜드 론칭 때부터 업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때 일부 소비자들이 전부 갈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난을 했지만 원하는 고객에 한해서 목전지도 제공하고 있다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잘 대응한 것이 주효해 더욱더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브랜드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접어들면 홍보하거나 쇠퇴기라는 사이클을 겪게 된다. 명륜진사갈비는 성숙기에 접어들자 과감하게 재도약의 전략을 마련했다. 흔히 마케팅에서 테이크오프(이륙, Take Off)라는 전략을 시도한 것이다. 명륜진사갈비의 테이크오프 전략은 주효했다. 먼저 과감하게 인테리어 컨셉을 바꿨다. 그리고 주문방식을 테이블오더로 바꿨다. 물론 주문을 받고 고기를 서빙

했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주문 없이 셀러드바에서 마음껏 가져가도록 뷔페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셀러드바에 들어가는 메뉴도 대폭 추가했다. 돼지고기 외에 닭고기, 그리고 떡볶이, 김말이 등도 추가했다. 메뉴의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심지어 불판을 고객이 직접 교체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와 같이 새로운 OS를 장착한 것이다. 리뉴얼된 명륜진사갈비는 소비자들이 열광했고 당연히 가맹점 매출액도 늘어났다. 더 놀라운 것은 인건비 절감은 물론 원가상승에 따른 수익률 감소 문제도 한방에 해결한 것이다. 단순히 테이블오더 즉 소프트웨어만 탑재한 것이 아니라 셀러드바 도입이나 메뉴 추가 등의 하드웨어까지 리뉴얼한 것이다. OS란 바로 이런 것이다. **KEN**



임영태

현 패스트푸드글로벌 부대표 임영태
현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현 외식산업정책학회 이사
전 데일리버(생활맥주) 부사장
전 장스푸드(60계치킨) 부사장
email: joylim@naver.com
휴대폰: 010-2440-7969



공정거래위원회

지연이자 관련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방문

씨유(CU)·지에스(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1월 12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를 방문해 씨유(CU)·지에스(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가맹본부에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연이자'를 인정한 편의점 업체에 대한 격려와 함께,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지연이자'(송금지연가산금)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당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가산금이다. 기존 지연이자는 미송금액의 연 20% 수준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상당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도 가맹본부의 높은 지연이자 부과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회차원의 지적과 공정위의 지연이자 관련 제도개편 계획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지에스(GS)25, 씨유(CU), 세븐일레븐

이 상생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지연이자를 기존 20%에서 6%~12% 수준으로 인하하였고, 이마트24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편의점들의 지연이자 인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러한 결정이 불경기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가맹본부-점주 간 상생 행보를 이어나갈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부회장 및 편의점 업체 임원진 등이 참석하여 업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이번 지연이자 인하를 통해 가맹본부-점주 간 상생과 포용의 문화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가맹사업법 집행 및 제도개선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RITE | 김은영 기자

Organ News

식약처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 당부

카페 등 마약 표시·광고 행위 점검 실시...식품표시광고법 위반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헵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4년. 1월)한 바 있다. 이미 사용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이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RITE | 김은영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분쟁조정 605건...손해배상의무 부담 132건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전체 접수 3481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구분	성립건수	피해구제액		
			직접피해구제액 [A]	간접피해구제액 (소송비 절감액)[B]	합계 [A+B]
2003년	계	1278	122,922	7,975	130,897
	공정	475	15,107	1,720	16,827
	가맹	263	3,162	965	4,127
	하도급	354	102,963	4,908	107,871
	유통	13	826	112	938
	약관	137	246	130	376
	대리점	36	618	140	758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이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접수를 보인 행위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다. 132건(21.8%)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및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085건) 대비 26% 증가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106%(111건→229건) 증가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257건) 대비 32% 증가했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02건→140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하도급 분야 중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도(492건) 대비 25% 증가하였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372건 중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1067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78건, 사업활동

방해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044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48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75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72건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339건 중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140건(41.3%)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행위가 89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92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가 72건(7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구입 강제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29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8건(27.6%)이었고, 상품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2023년 전체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도(2868건) 대비 10% 증가했다. 분야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75건, 약관 분야가 278건 등의 순이었다.

2023년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도(947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조정원은 올해에도 중소기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분쟁 발생 위험이 높아져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작년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계획이다.

WRITE | 김은영 기자

Organ 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에게 술 판매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관련 법령 조속히 개정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에게 술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술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1차: 영업정지 2개월→7일)하고,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월 8일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도 개최된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WRITE | 김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위생상태·식재료 보관 등...조리음식 수거·검사 병행도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휘궐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3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

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배달음식 시장규모는 2020년 17.3조 원에서 2023년 26.4조 원으로 커졌다.

이번 1분기에는 마라탕, 양꼬치, 휘궐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됐다.

참고로 작년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총 3998개소를 점검한 결과 51곳(약 1.3%)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기타 위반(3곳)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WRITE | 김은영 기자

‘K-프랜차이즈’, 청룡의 기상을 받아 세계로

2023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세계 경제 불안정과 고금리, 고물가 등 국내 경제 불안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 3년간의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큰 희망을 품고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결과는 기대를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아쉬움이 어느 때 보다 큰 한 해였다. 2024년 새해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새로운 활기를 줄 동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구원투수가 절실한 것이다. 모두들 4차 산업, AI 산업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도 자유시장주의 경제모델의 꽃인 지식산업의 하나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즉 한국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다. K-Pop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본격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열풍의 최종적 종착지는 결국 먹거리, 즉 음식문화가 될 것이다. 한국 김밥, 치킨을 사기 위해 미국인들이 미국 거리에서 긴 줄을 서고 있다. 중국 여행객들은 이제 서울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까지 숨겨진 맛집을 찾아 다니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맥도널드’, ‘KFC’ 처럼 세계인들이 즐기는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탄생이 멀지 않다.

둘째로 한국 프랜차이즈의 우수한 경쟁력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는 치열한 경쟁 끝에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선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성장했다. 우리 협회는 2023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회원사들과 한국관을 구성해 참여했다. 현지 시장의 반응은 한 마디로 폭발적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에서의 정부

차원의 리브콜도 쏟아지고 있다. 올해도 과감하게 더 많은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날씨가 추워져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환경이 되어보아야만 그 진가를 비로소 알 수 있다. 한국프랜차이즈는 위기와 경쟁을 뚫고 이겨낸 강한 DNA를 갖고 있다. 모두들 좌절하고 두려워 주저앉아있던 시절을 떨치고 일어나 오늘날 세계 2위의 위상을 이룬 것이다.

청룡의 새해가 밝아왔다. 청룡은 용맹하고 강인하며, 재물과 행운을 상징한다. 따라서 청룡의 해는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창 의와 도전이 체질인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청룡의 해에 기대가 큰 이유다. 다만 우리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넋지 효과’라는 말이 있다. 등을 살짝 밀어주는 작은 도움을 주거나 옆구리를 슬쩍 찌러 방향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올린다는 말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와 간섭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정부의 ‘넋지’의 손길이다. 새 해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세계 속의 K-프랜차이즈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KFN**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가맹비, 로열티 어떻게 수납하시나요?

업계 최초 CMS프로그램 사용료 3년 무상 공급

✓ 타사 대비 3년간 100만원이상 절감



CMS + ERP + 핀테크 금융서비스

씨엠에스솔루션 www.cms.kr

1600 - 2296

커피를 잘 알고, 잘 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컴포즈커피 김진성 대표



포토드링크, 신세계 센텀시티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최근 10년간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해왔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태동은 1970년대 후반이다. 2010년까지 30년간 양적인 팽창에 이어 그 후 10년간은 질적인 성숙도 함께 이뤘다. 한국 GDP의 약 8~10% 선을 차지하면서 한국경제의 서비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해온 업종 중 하나는 커피전문점이다. 이 중 고물가에 소비자를 반영한 저가 커피로 국내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킨 브랜드가 있다. 바로 컴포즈커피다. 지난해 2500개의 가맹점을 오픈하며 지속 성장세다. 지난해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관의 유공 대상에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했다. **INTERVIEW** | 이진창 발행인 **WRITE** | 이호 국장

컴포즈커피는 제이엠커피그룹에 속한 커피 프랜차이즈다. 제이엠커피그룹은 지난 1999년 커피 머신을 납품하는 제이엠통상으로 출발해 원두공급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이후 2014년 원두 '비터 홀릭'과 함께 자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컴포즈커피를 론칭하고 가맹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후 2017년 150개, 2019년 400개, 2021년 1380개, 2023년 2500개점의 가맹점을 오픈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을 기준으로 가맹점당 평균 2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본사)는 매출액이 2019년 127억원, 2020년 272억원, 2021년 51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김진성 컴포즈커피 대표는 “컴포즈커피는 카페라는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커피를 잘 하는 브랜드임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체 생산 원두로 맛있는 경쟁력

컴포즈커피의 가장 큰 경쟁력은 '맛있는 커피'다. 차별성은 이 맛있는 커피의 원두를 자체 생산한다는데 있다. 2016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로스팅 공장 설립을 통해 가맹점으





로 공급되는 원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이다. 아울러 컴포즈커피의 성장에 맞추어 2021년 12월 전자동화 컨트롤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도 오픈했다.

HACCP 인증까지 완료한 공장은 상품 설계부터 개발, 제조, 유통, 물류까지 모든 생산 과정 수행이 가능하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프로바트와 이탈리아 페트론치니의 대형로스터, 미국 MPE사 원두이송라인, 이탈리아 'ICA' 패키머신 등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는 현재 하루 10톤, 월 240톤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폐업을 2% 미만 '탄탄한 내실'

컴포즈커피를 이끄는 수장은 김진성 대표다. 2021년부터 김 대표가 컴포즈커피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까지 브랜드의 성장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면, 이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재정비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브랜드의 성장을 수반한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결국 가맹점 운영으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객이 소비하는 브랜드의 만족도 그리고 상품이 제공되기까지 가맹점에서의 편의성 등도 김 대표가 생각하는 기본이다.

“어떤 일이건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가맹사업의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맹점과의 상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막연하게 가맹점에 현물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김 대표의 생각이다.



“가맹점주님이 저희 브랜드를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보답 드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각 가맹점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유동적으로 서포트 해드리고 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마인드는 2% 미만의 폐업률이 증명하고 있다. 현재 소비 트렌드와 가맹점과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재정비하는 데에 힘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맛은 기본! 다양성 확대까지

컴포즈커피는 앞으로 신규 디저트를 포함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론칭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에서의 편의성, 합리적인 수익률, 고객의 만족도를 고려한 정책이다. 소비자들에게 지금의 컴포즈커피는 단순히 커피가 맛있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다양성을 대폭 확대하여 맛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만족감을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국민 커피 브랜드로 인식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커피가 바로 컴포즈커피다”

가맹점과의 상생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요소다. 김 대표는 “막연히 가맹점으로 현물을 지원하는 것은 가맹점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각한다”라며 “한번의 프로모션이 가맹점의 존폐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고, 각 가맹점의 매출, 상권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프로모션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상황을 피할 수 없음에 따라 가맹점의 순수의 보장을 위한 원재료값의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동결 혹은 인하 등의 대처로 가맹점의 부담 완화, 순수의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제는 해외진출...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컴포즈커피는 2023년 12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관의 유공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가맹점과 소비자의 만족에 중점을 두고 브랜드를 경영한 성과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가맹점과의 상생, 일자리 창출, ESG 경영 등 정부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에 부합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국내 시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현재 커피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의 프랜차이즈가 과포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에 해외 첫번째 매장을 론칭, 성황리에 운영중이다. “가맹점과의 상생은 물론이고 가맹점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 경쟁 시장에서 더욱 뛰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거듭나겠다” 김 대표의 진한 커피 향이 세계를 휘리르고 있다. **KFN**



“아이들이 놀면서 공부하는게 나의 사명”

아소비
박시연 대표



본사 전경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교육은 그 사람의 인지, 사고와 신체 발달 모두를 관장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단순히 주입식에서 벗어나 창의적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에 부모의 관심이 높다. 이런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20년 넘게 아동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가 있다. 박시연 아소비 대표다. 2002년 교재를 출시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180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표 교육 브랜드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관의 유공 대상에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했다. 아이들의 소중한 비전, 아소비의 성장 스토리를 들었다.

INTERVIEW | 이진창 발행인 WRITE | 이호 국장

대 학교에서 아동학과를 전공한 박시연 아소비 대표는 대학원의 유아교육과를 거쳐 35년 이상 아동 교육 한길만 걸어왔다. 2000년 초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교육 교재 내용을 꼼꼼히 살피던 그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 교재를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게 아소비의 첫 출발이다.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력했다. 자신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교재를 만드는 데에만 5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유아교육 교재 유통시장을 잘 몰라 교재 유통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교재 내용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죠.” 자신이 만든 교재를 이용한 공부방을 직접 운영해 교재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성이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2006년 경기도 양주의 아소비 공부방이다. 5-9세 전문 교육원(공부방/학원)으로 가맹을 직접 시작하게 됐다.

공부가 즐거운 놀이 ‘맞춤 학습 진도’

아소비는 5-9세 전문 교육원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비’전이라는 사명이다. 한자 해석으로는 아이아/웃음소/클비→ 아이들이 크게 웃는다고 해석된다. 아이들이 공부를 즐거운 놀이처럼 생각하길 바라는 박시연 대표의 교육적 신념



아소비 교육원



이 반영된 사명이다. No 스마트패드, 100% 대면 수업으로 진행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초등 교육을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국어(한글), 문해력 논술, 수학, 한자,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교재와 교구를 통해 매일 즐겁게 학습한다.

아소비는 ‘브레인 샤워’, ‘걷는 교육’, ‘왜 학습’이라는 3가지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브레인 샤워는 기계적인 문제 풀이와 반복 학습, 무분별한 선행학습, 주입식 교육을 씻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걷는 교육은 놀이 중심의 기어 다니는 유치 과정과 교과 중심의 읽고 쓰는 초등 과정의 중간 단계의 교육으로 탄탄한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평생 공부 습관의 힘을 길러준다. 아이들은 흥미를 느낄 때 더 집중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이 커지게 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재밌어서 유쾌, 쉬워서 상쾌, 빨리 알아서 통쾌한 왜 학습



이 교육 이념의 기반이 된다.

아소비는 무분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개별 진단 테스트와 SPTP 종합 심리검사를 통해 아이의 학습 수준을 확인, 맞춤 학습 진도를 설정한다. 아소비 학습 진도 설정은 학습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없이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소비는 전국 약 180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랜차이즈다. KFA 국무총리 표창 수상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22년 프랜차이즈협회 협회장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다. 2023년 정부 포상을 받은 기업 중 유일한 교육 브랜드로서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유치원에서 초등학생까지 영역 확대

아소비는 초창기 ‘특허받은 교재(한글)’로 광고 없이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만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엔 5-9세 비율이 5-7세(유치)가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7-9세(초등) 비율이 훨씬 높다. 이에 발맞춰 올해 캐치프라이즈도 ‘초등까지 쭉~ 아소비’로 선정됐다. 초등 교육을 더 강조하는 전략을 선보이며 유치 초등 전문 교육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시연 대표는 “캐치프라이즈에 걸맞게 초등 교재 신간 출시& 리뉴얼 작업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한다. 3월부터 선보일 초등 대비 교재는 ▲교과서 학습 프로그램 3종(국어수



학, 교과서 어휘 마칩표, 연산) ▲문해력 프로그램(기초 문해력, 기본 문해력, 심화 문해력 논술)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두뇌 톡톡 프로그램, 언어 톡톡 프로그램) 총 8종이다.

박시연 대표는 “아소비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회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무리하게 확장할 생각은 없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건강한 유기능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원 지원에 공격적 마케팅…본사 역량 UP

교재에서 출발한 아소비이지만 가맹점 교육과 지원도 탄탄하다. 먼저 전국 교육원의 일정 이상의 퀄리티를 위해 원장에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연차별로 정칙교육, 준전문가교육, 전문가교육, 지도자교육, SLA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가맹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연간 온, 오프라인 20회 이상 교육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수강할 수 있는 ‘아소비 온라인 아카데미’ 운영으로 최신 교육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 교육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가맹점의 오랜 노력과 기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답하기 위해 연차별로 감사 선물을 증정한다. 또 가맹점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장들은 우수교육원으로 선정하고 횡수에 따라 상품권이나 순금 등을 증정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의 공격적 마케팅도 본사의 지원이다. 최근 새로운 TVCF 영상을 TV, 온라인 등으로 송출하면서 3주만에 유튜브에서만 해당 광고 영상 100만뷰를 돌파했다.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빅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진행으로 타 교육 브랜드



아소비 박시연 대표

와 차별화를 두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브랜드 광고와 더불어 가맹점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입회 마케팅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다. 가맹본부가 탄탄해야 가맹점과의 상생도 가능하다고 믿는 만큼 아소비는 앞으로도 가맹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 창업도 지원

아소비는 건강한 공부, 즐거운 공부, 행복한 공부가 모토인데 무분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즐겁고 재미있는 공부로 아이들이 아소비에서 성장했으면 한다는 박시연 대표. 그녀의 또 다른 바람은 교육 경력은 있지만 육아나 개인적인 이유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공적인 교육원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거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학습과 육아, 발달 상담 등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육아 상담을 맘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점 센터를 오픈하는 게 또 다른 목표다.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과 높은 고용 증가율, 기부, 국가 공신 기관과의 아동 캠페인 등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건강한 교육을 실천하는 박시연 대표의 소중한 비전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다. **KFN**

가맹본부 특성 반영한 맞춤 제작 가능한 가맹점 이론 영상 교육 서비스

WRITE | 김은영 기자



최근 브랜드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심도와 중요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 개점 전 실시하는 교육은 개점 초기 불안정할 수 있는 가맹점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더 나아가 해당 가맹점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교육은 가맹사업 당사자 상호 성공을 위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다수의 가맹본부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교육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는데 이는 체계적인 이론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 교육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인원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작은 빈도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주)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가맹본부가 효과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영 가치관을 담은 맞춤 교육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작되는 교육 영상은 가맹점의 효과적인 경영과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운영하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 창업에 대한 이해 ▲가맹점 운영 법률 ▲가맹점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점포마케팅 전략 ▲배달앱 활용 전략 ▲고객서비스 전략 ▲가맹점 노무관리 ▲가맹점 세무관리 등이다.

과목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전체 과목이 아닌 가맹본부가 필요로 하는 과목 선택도 가능하다. 한번 촬영으로 신규창업자는 물론이고 기존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본사 신규 직원 교육에도 활용할 수도 있다.

가맹점창업과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이론 교육 기반 위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가맹점의 역량 강화와 가맹점사업자의 생산적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주)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교육팀

☎ 070-5133-0934 **KFI**

● 쿠우쿠우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려주세요” 고객만족도 조사



초밥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쿠우쿠우'가 고객의견을 청취하는 '쿠우쿠우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려주세요!' 참여행사를 오는 3월14일(목)까지 진행한다.

쿠우쿠우, 목포북항점 신규 오픈

지난 2월 1일에는 목포시 산정동에 '쿠우쿠우 목포북항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쿠우쿠우 변화에 참고할 예정이다. 참여고객중 추첨을 통해 쿠우쿠우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참여방법은 ①매장 포스터 내 QR코드 촬영하기 ②구글폼 설문지 작성 후 제출하기를 통해 가능하며, 3월19일(화) 개별 연락된다.

이외에도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패밀리레스토랑 '쿠우쿠우'는 플레이팅 대결의 최강자를 찾는 고객참여 이벤트를 2월 29일까지 진행했다. 다양한 메뉴와 소스로 접시 위를 예쁘게 플레이팅 해 소비자의 미적 감각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SNS 계정을 통해 응모를 받았다.



쿠우쿠우 목포북항점 인근에는 먹자골목으로 다양한 외식 브랜드들과 비금도와 도초도로 가는 여객선 이용이 활발한 상권에 위치해 있다. 목포의 노을 명소로 불리며 광장, 수변테크, 산책로, 공연장, 다목적운동장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노을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쿠우쿠우 목포북항점은 스시, 롤, 군함, BBQ, 디저트, 베이커리, 샐러드, 누들, 프라이드 등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쿠우쿠우 관계자는 “새롭고 다양한 메뉴, 고객만족서비스, 쾌적한 매장 환경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FI**

● 명륜진사갈비 1월부터 기부 릴레이 캠페인

숯불돼지갈비 명륜진사갈비는 지난 1월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기부 릴레이 캠페인'은 해당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전 메뉴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당일 매출의 50%를 지역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캠페인 행사이다.

명륜진사갈비 가맹본사 (주)명륜당은 행사를 진행하는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에게 할인한 금액 전액을 가맹점에 지원하고, 이와 함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본사 인력을 무상으로 투입한다.

현재까지 원주무실점, 파주교하점, 서울우장산역점, 서울상도



점, 울산달동점, 청주용암점, 용인역북점 등이 훈훈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Brand Highlight

● 리맥스코리아 제41회 온라인부동산투자박람회 개최

부동산 기업 리맥스가 2월 21일 리맥스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41회 온라인 부동산투자 박람회'를 라이브 방송으로 개최했다. 리맥스는 이번 박람회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 속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리맥스 측은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오피스의 '명목임대료(무상임대 등을 적용하지 않은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8.8%가 올랐다'면서 "또 지난해 삼성SDS타워(8500억원), 판교 알파돔 타워(7284억원), 콘코디언 빌딩(6292억원), 마제스타 시티타워1(5200억원)가 높은 금액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에선 리맥스 가맹사 내 400여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건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전문 컨설팅도 실시했다.



Brand Highlight

● 다비치안경 안경 파손 보상 '비치 케어플러스'선보여

다비치안경이 업계 최초로 안경 파손 보상 서비스 '비치 케어플러스'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다비치에서 구매한 안경이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1년 내 파손되었을 경우, 실 구매가의 90%를 보상해 준다. 가입료는 3000원이며 최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다비치 케어플러스'를 가입한 고객은 언제든지 매장을 방문해 정밀 시력 검사와 무료 안경테 피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 다비치안경 매장에서 안경 구입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분실 및 파손 보상 접수는 '다비치 케어플러스' 카카오톡 알림톡의 가입증명서에 '보상 신청하기' 또는 다비치마켓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파손된 안경은 촬영 및 보관해 매장 방문 시 지참하면 된다.



● 자담치킨 '매출상생 프로젝트' 성과 발표

치킨 프랜차이즈 자담치킨이 가맹점과 본사가 협력해 추진한 '매출상생 프로젝트'의 2023년 4분기 진행 결과, 목표를 달성한 가맹점 5곳에 대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가맹점 매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것으로 점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본사 슈퍼바이저와 가맹점주가 함께 매출 목표를 설정한 뒤 다양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3년 4분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매장은 부천 역곡점, 경기 고양동점, 경기 광주신원점, 대구 월성점, 제주 이도점으로 평균 2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Brand Highlight

● (주)지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KOVA' 선한 기업 인증패 수상

국내 최대 삼계탕 프랜차이즈 브랜드 지호한방삼계탕을 운영 중인 (주)지호는 지난해 말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로부터 '선한 기업/사람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인증패는 뜻밖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기업 또는 사람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주)지호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에 모범이 되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꾸준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호의 대표 브랜드 지호한방삼계탕은 1991년 장안동 작은 가게에서 시작되어 현재 국내 최대 삼계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동종 업계 중 국내 최초 특허 받은 한방육수와 최고의 삼계닭이라 불리는 웅추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Brand Highlight

● 키크부대찌개 백악관 셰프 '안드레 러쉬'와 신메뉴 개발

미군 출신이자 백악관 출신의 셰프, 안드레 러쉬(49)가 한국의 대표적인 부대찌개 브랜드인 키크부대찌개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게 됐다. 이 소식은 지난 1월 20일, 유튜브 '암코리아'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러쉬 셰프는 본인이 백악관에서 요리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칠리와 혼합된 특별한 부대찌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부대찌개를 시식한 키크부대찌개의 정순태 대표는 "부대찌개의 혁명이 일어날 것, 잘 만들어 보겠다"라며 새로운 메뉴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이 새로운 부대찌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칠리를 혼합해, 특별하고 독창적인 맛으로 소비자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시는 오는 4월, 키크부대찌개의 전국 매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굿네치킨 타이핑 게임과 ‘맵단짱 챌린지’ 프로모션 진행

지앤푸드의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굿네가 신제품 ‘맵단짱 칩킨’의 광고 카피를 활용한 타이핑 게임 ‘맵단짱 챌린지’로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맵단짱 칩킨 광고는 굿네 브랜드 모델 르세라핌(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과 함께 ‘입맛 사로잡는 맵단짱이 입안에서 돌고 도는 맛’의 메시지를 담았다.

게임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주어진 제시어 ‘매콤한데 달콤하고 달콤한데 짭짤하고 짭짤한데 매콤하고’를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많이 입력해서 돌고 도는 맵단짱 회오리를 최대한 크게 만들면 된다. 한 아이디(ID)당 게임은 무제한 참여 가능하며, 그중 가장 높은 기록으로 1일 1회 경품 응모가 가능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참여자들 중 추첨을 통해 LG스텐바이미, 에어팟 맥스, 애플워치 등 Z세대가 선호하는 핫한 경품



들을 증정한다. 게임 종료 후 참여자들에게는 1일 1회에 한해 맵단짱 치킨 주문 시 사용 가능한 3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Brand Highlight

● 채선당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17년 연속 수상

샤브샤브 전문 브랜드 채선당이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17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7년 연속수상이라는 영광과 유례를 찾기 힘든 독보적인 행보를 견고 있다. 채선당은 샤브샤브 업계에서 끊임없는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20여년 동안 성장을 인정받았다. 한편, 채선당은 대한민국 샤브샤브 브랜드로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샤브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채선당은 무한리필바를 운영하는 ‘자연한가득’, 1인 샤브 ‘샤브보트’ 등으로 상권 특성과 외식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채선당 도시락&샐러드&밀키트24’와 ‘채선당 밀키트24’까지 브랜드로 런칭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Brand Highlight

● 본죽&비빔밥 봄 신메뉴 ‘미나리 꼬막비빔밥’ 출시

본아이에프의 한식 브랜드 ‘본죽&비빔밥’이 봄 시즌을 맞아 신메뉴 ‘미나리 꼬막비빔밥’을 출시했다. 미나리 꼬막비빔밥은 입맛을 돋우는 봄 제철 식재료들을 담아냈다. 매콤새콤한 본죽&비빔밥만의 비법 소스로 버무린 여수 새꼬막과 향긋한 미나리가 잘 어우러져 맛과 식감은 물론 향까지 사로잡는 것이 특징이다.

미나리 꼬막비빔밥은 본죽&비빔밥이 올해로 3년 연속 봄 시즌에 맞춰 선보이고 있는 기간 한정 메뉴다. 꾸준한 입소문으로 처음 출시한 2022년 대비 판매량이 10% 상승해,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량만 36만 그릇에 달한다. 신메뉴는 전국 본죽&비빔밥 매장과 모바일 주문 앱 본오더 및 각종 배달 앱을 통해 21일부터 선보였다.



● 네네치킨 광, 사이판 지역 해외 진출 본격화

치킨 브랜드 네네치킨은 현지 맞춤형 K-치킨 전략을 기반으로 지난 2월 1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네네치킨 본사에서 광, 사이판 지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 사이판 지역을 총괄 운영할 이현우 대표는 “광, 사이판 시민들에게 현지 맞춤형 K-치킨을 소개할 기회를 준 네네치킨에 감사드리며 준비를 철저히 해서 1호점 오픈은 물론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현광식 네네치킨 대표 또한 “네네치킨이 광, 사이판에 정착해 K-푸드, K-치킨을 뛰어넘는 글로벌 치킨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네네치킨은 싱가포르,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두바이, 일본, 캐나다,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을 포함한 11개국에 약 150개의 해외 매장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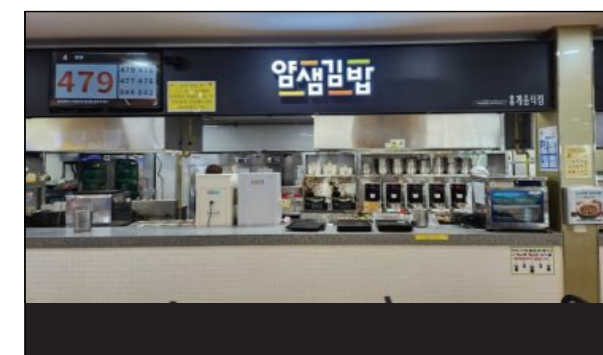


Brand Highlight

● 암샘김밥 대보유통과 고속도로 휴게소 출점 시작

암샘김밥과 대보유통이 협력의 결실을 맺고 오창휴게소점(통영방향)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전국 25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암샘김밥과 국내 최대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기업인 대보유통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체결을 성사했다. 첫 출발은 오창휴게소점이다. 1월 25일부터 암샘김밥의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오창휴게소점은 암샘김밥의 최신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스마트키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단 3분 안에 혼자서 메뉴 6종(김밥 3종류와 메뉴 3종류)을 동시에 조리할 수 있다. 또 암샘김밥은 휴게소 특화 메뉴도 함께 출시한다. 선호도가 높은 김밥, 떡볶이, 모듬기 등의 인기 메뉴에 휴게소 특화 ‘EX-라면’을 출시했다.



Brand Highlight

● 이디야커피 ‘크랜베리월넛 베이글’ 출시

이디야커피가 2월 27일 베이글 리뉴얼을 통해 베이커리 제품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최근 식사 대용으로 베이글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고객들이 보다 든든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플레인 베이글’ 중량을 10% 늘린 제품으로 제공하고 신제품 ‘크랜베리월넛 베이글’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제품은 크랜베리 특유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과 호두의 식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먹을수록 입안 가득 감칠맛이 감도는 것이 특징이다. 이디야커피는 베이글 제품 중량이 늘어난 만큼 베이글과 함께하기 좋은 ‘플레인 크림치즈 포션’도 보다 넉넉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보다 40% 증량한 제품으로 변경해 제공한다..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 칼럼

라이콘기업 육성? 골목상권 미래

WRITE | 이경희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들었던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소상공인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었다. 골목 상권의 작은 식당도 전국적인 기업이나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라이콘 정책을 발표했다. 라이프.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와 가치를 창출하며 유니콘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브랜드를 '라이콘'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육성하려는 라이콘이 되는 방법은 전후방 통합이나 온오프라인 플랫폼 결합 등 여러 가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골목 식당이 프랜차이즈 방식을 접목하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고, 고객 경험 가치를 기반으로 전방통합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 K푸드가 글로벌 푸드 시장의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피자마자, 킹콩부대찌개, 걸작떡볶이, 피자마루, 족발야시장, 불막열삼, 막창도둑 등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과 달리 국회는 지속적으로 프랜차이즈 드림을 앗아가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이 라이콘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방법인 프랜차이즈의 성장을 억누르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독립채산제인데도 사실

상 가맹점 단체를 노조처럼 인정하는 개정안이 대기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프랜차이즈 규제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자들의 생각처럼 프랜차이즈를 규제한다고 골목상권이 처한 모든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기의 근본요인은

첫째, 소상공인 위기의 본질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이다. ▲고령 소상공인과 MZ세대의 소비에 대한 감성 차이 ▲치솟는 금리 ▲높은 물가와 인건비 ▲구인난 ▲인구감소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이후 달라진 소비패턴 ▲배달앱수수료 디지털 마케팅비의 지출 등 늘어나는 각종 비용 등이 골목상권을 힘들게 하는 근본 요인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가맹본부는 오히려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 브랜드 빌딩을 포함해 가맹점 코칭, 마케팅 지원, 제품 개발, 노하우 제공 등 다양한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부가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셋째, 기업가형 청년들의 의욕을 꺾는다. 요즘 골목상권을 주도하는 계층은 2030 청년들이다. 이들은 성장에 대한 의지가 크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법이 잇따르자 외국계 사모펀드나 큰 회사에 사업을 팔고 도망가는 게 청년 장사꾼들의 꿈이 되고 있다.

넷째, 형평성이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달리 국내 사업자를 위촉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이는 우리나라 골목상권을 외국계 프랜차이즈에 내주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다섯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의 꽃은 프랜차이즈에서 필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골목상권의 데이터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푸드테크 역시 마찬가지다. 조리로봇의 개발이나 제품 개발은 영세 소상공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여섯째, 가맹본부가 힘들어지면 영세한 소상공인만 더 어려워진다. 가맹사업 규제 강화는 힘없는 본사를 만들고 가맹본사가 이익도 내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소상공인인 가맹점도 약해진다.

일곱째, 프랜차이즈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린다.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업자는 운명공동체인데 가맹법이 분열과 갈등을 강화하면 프랜차이즈의 토대가 무너진다.

여덟째,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가맹본사는 청년들에게 지식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가맹본사가 약해지면 그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가맹 개정법 가맹법을 강화하게 만드는 일부 악독한 가맹본사들이 있다. 하지만 몇몇 기업을 때문에 전체 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골목상권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가맹사업만 규제한다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규제도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다. 모난 돌이 정 맞듯이 우리나라 가맹법만 너무 엄격하면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토종 프랜차이즈만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자들은 눈앞의 표가 아니라 이면에 있는 진실과 산업의 장기적인 미래 전망까지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기 바란다. 훗날 골목상권을 외국계 프랜차이즈에 뺏기게 되면 법안발의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KFA]**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부자비즈 의장
창업·마케팅 분야 저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주임 교수

저서

CEO의 탄생
이경희 소장의 2020창업트렌드
내사업을 한다는 것

강의

세종대 MBA, 동국대 MBA,
경희사이버대학 호텔외식MBA,
한국방송통신대학 프라임스쿨,
세종사이버대학 프랜차이즈 전략,
신사업개발, 상권입지론, 외식산업론,
기업가정신 등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 칼럼

소비자 건강 가장 먼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바른치킨·권사부순대국·카페봄봄

WRITE | 장재남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즐거운 건강관리를 지향하는 '헬시플레저 (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따라 당·나트륨·칼로리를 낮춘 음식과 영양성분 표시정보를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외식 가맹본부들 또한 최근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당이나 나트륨을 저감화시킨 메뉴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영양정보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나 매장에 표시하거나 기존 메뉴의 나트륨과 당을 저감시킨 메뉴를 개발하여 가맹점에 판매하는 브랜드는 극히 미비하다. 물론 브랜드 스스로 소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정보를 표시하거나 나트륨과 당을 줄인 메뉴를 개발하여 가맹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브랜드들도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 바른치킨, 권사부순대국, 카페봄봄 이다. 이 4개 브랜드는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당과 나트륨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에 적극 참여하여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낮춘 메뉴를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루에프씨의 바른치킨(대표 이문기)은 나트륨 함량은 저감하되, 메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짭짤한 맛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메뉴 개발에 착수한 결과 염지제의 나트륨 함량은 기존(자사) 대비 24% 감소, 염장된 wing은 13% 감소, 조리된 핫윙 봉 후라이드는 22% 감소시켰다.



바른치킨의 핫윙봉후라이드

외식전문기업 ㈜JK(대표 김태훈·전민호)의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은 기존 숯불데리야끼 메뉴의 염지제 나트륨 함량을 줄여 나트륨 저감 메뉴를 개발하여 전 가맹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닭 염지제의 성분 및 염장액 비율 조절을 통해서 기존 메뉴 고유의 "짭 맛, 감칠맛" 등은 유지하면서 나트륨 함량은 18.1% 줄어들었다.



권사부 순대국(대표 권용국)은 기존 순대곱창 볶음의 양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장과, 고추

장, 그리고 조미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 나트륨 함량을 낮춘 막창볶음 용 양념을 통해 성공했다.



카페봄봄(대표 이승은)의 인기 음료 중 하나인 요거트 라인은 유당과 설탕의 함량이 높아 당수치가 높은 음료이다. 당 함량(기존 제품 대비 61.2% 저감)을 낮춘 요거트 파우더를 개발했다. 이를 사용한 요거트 음료 4종을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과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맛도 유지하고, Food Cost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당과 나트륨을 저감시킨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관심 있는 브랜드들이 식약처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듯 하다 **KFN**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CFE, 경영학박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 칼럼

순간의 선택을 위한 기준

WRITE | 안철현

사고는 대부분 한참이 지나서야 터진다. 그 순간에는 다소 걱정스럽고 미심쩍기는 하지만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별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저런 변명과 함께 일단 넘어가곤 한다. 독자들은 당장에는 좀 찝찝한 기분일 나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그냥 덤석 달콤한 걸 입 안으로 구겨 넣은 경험을 해보셨는가?

그러나 이런 선택은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피하고 싶은 참혹한 결과로 저승사자처럼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되돌려 놓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가 많다. 우리 주위에서 한 순간의 유혹과 순간의 선택으로 나중에 끔찍한 고통을 겪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목격한다.

리스크를 끌어안고서라도 과감하게 추진했지만 나중에 실패로 돌아가거나 나쁜 결과를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경험으로 깨닫고 나중에 반성하고 바로잡음으로써 바꿀 수 있는 일도 당연히 많다. 그것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결과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나를 지속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면 막연히 일단 저질러 놓고 경험한 후에 나

중에 가서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의로운 일이거나 올바른 일이라면 또는 성공의 발판이 되어줄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하는 것과는 다르다. 부당한 일 앞에서나 당장의 이익 앞에서는 좀 더 그 순간을 인내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나중에 가서 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초라하고 끔찍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좀 더 멀리 보아야 한다.

필자의 의뢰인 중에 고위직 공무원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돈 가방을 손에 들고 찾아와 청탁하는 지인의 유혹을 한 순간 펼쳐내지 못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서야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고 구속까지 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됐다.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라면 그 유혹의 강도는 더 센 법이다.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더 멀리 보기도, 뿌리치기도 어렵다.

필자도 위 공무원과 사안은 다르지만 유사한 경험에 있다. 단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수년이 지나서야 금감원 조사도 받아봤고, 손해배상소송도 당해봤다. 그럴 때에는 왜 유독 나에겐 요행도 없고, 공짜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없을 까? 하고 한탄해 보았지만 신이 유독 필자에게만 까다롭게 대했던 건 아니리라 믿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렸고,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살짜만 건드려도 아프다.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하루하루는 단속될 가능성 보다 그렇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당장엔 편하다.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겠지만 이제 반복되던 어느 날 느닷없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킨



다. 이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다.

남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행동을 조심한다. 그러나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소 함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동안 만나본 의뢰인들과 상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달 또는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화 되어 큰 홍역을 치르는 일은 대부분 수 년 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에피소드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는 가래로도 못 막는다. 막더라도 큰 손실과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해서야 겨우 막을 수 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은 순식간이었거나 한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해결하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좀 미심쩍고 이진 아닌데 하면서도 무조건 돌진할 것인가, 두드려보고 고민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 그 기준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그른 일인가 또는 실패하더라도 시도해야 할 도전인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똥고집인가가 되어야 한다. **KFN**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2016년 - 송파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2016년 - 강남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현/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

현/(주)소리바다 감사

현/경희대총동문회 감사

현/사단법인 민주정치아카데미 상임이사

T : 02-3478-6011 /

E : bebopmonk@hanmail.net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마스터 프랜차이즈보다 지분투자가 유리한 3가지 이유

WRITE | 최인용

한류의 붐으로 프랜차이즈가 해외 진출 하기 유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한국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해외진출의 방식은 크게 마스터프랜차이즈, 직영점을 통한 직접진출, 합자투자 등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직영점을 통한 직접진출로 많은 본사들이 해외시장의 현지화에 실패를 맛본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리스크를 피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외진출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해외에서의 브랜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수익이 단건으로 이뤄지고, 향후 기업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분투자를 통한 조인트벤처 형식의 프랜차이즈가 떠오른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보다 다

음의 세가지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구분	마스터프랜차이즈	지분투자	설 명
리스크	낮음	보통	직접투자보다 지분투자의 리스크 적음
브랜드 관리	어려움	가능	지분투자의 경우 지속적 관리로 브랜드 관리 용이
수익구조	100%수익	수익으로 보지 않음	배당소득에 대하여 95% 이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 신설
브랜드가치	기업가치 증가 상대적 작음	기업가치 증가요인 큼	멀티플배수 적용에서 지분투자가 유리



굽네치킨 미국 텍사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식

1. 지분투자는 브랜드 관리 면에서 유리

지분투자의 경우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보다 유리하다. 지회와 사업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익성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본사의 브랜드나 마케팅전략에 대해 높은 피드백을 줄 수 있다.

2. 배당수익을 수익으로 보지 않는 지분투자가 유리

수익면에서도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은 100% 법인의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만, 해외자회사를 통한 배당금 수익의 경우에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적용된다. 지분투자회사 중 10% 이상의 주식만

출자한다면, 외국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3. 지분투자는 M&A의 멀티플에서 유리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는 M&A도 활발하다. 최근 수년간 맘스터치, 메가커피, 역전할머니맥주 등의 M&A사례에서 보듯이 프랜차이즈는 청년들에게 하나의 꿈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아쉬운 점은 국내 프랜차이즈의 M&A 사례에서 기업의 가치가 (M&A시 기업의 가치 = 실질 영업현금흐름 * 멀티플 배수)멀티플 배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략 5~7배 정도에서 최근의 멀티플 배수를 받는 것이 우리 프랜차이즈의 현실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매장을 내고 있던 공차의 경우에는 단순영업이익만으로도 15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는 것을 참고하여 볼 때,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은 지분투자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77]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전)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강남지사 대표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세무사
마곡지주협의회, 하남미사지구지주 협의회 자문세무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력위원장
T : 02-555-5025
E : ciy0130@daum.net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 칼럼

프랜차이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WRITE | 이금구

20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유예를 추진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고를 말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에 의한 사망 외에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에 해당되는가?

직업성 질병은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

며, 종사자 사망이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망으로 간주된다.

3.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처벌을 받는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해당되며,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공동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 책임과 권한 및 의

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고 있는 경우 각 부문이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각 사업을 대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3) 복수의 사업부문 대표가 있으면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이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 사업으로 운영될 경우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다만, 중요 의사결정을 총괄 대표가 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의사결정구조,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은 누구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위탁, 도급을 포함한 노무제공자,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이다. 배달 라이더 등과 같은 특수고용종사근로자는 제외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고용종사근로자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5.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경영책임자 등 자연인에게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1/2까지 가중된다.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된다.

6. 식당·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개인 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

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배달 라이더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사에서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 직영점의 사업자 등록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등 독립성이 없다면 본사와 직영점의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한다.

7.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첫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둘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정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셋째,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신고제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를 정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넷째,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마련. 다섯째,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본사 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맹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인 리스크 외에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이 클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에는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의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77**



이금구

노무법인 C&B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1991년_제3회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2012년_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고문2015년_(사)한국소상공인단체
연합회 고문2016년_GS25,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T : 1544-8323 /

E : www.franhr.com



1월 25일 청년강소회가 상록보육원을 찾아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



2월 27일 상생파트너위원회 운영진 신년모임을 개최했다

협회 분과위원회, '청룡의 해' 맞아 회원사 단합 위한 본격적 활동 나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분과위원회들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며 협회 회원사들 간의 단결과 소통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강소회(회장 이영채)는 '사랑나눔' 사회봉사 활동으로 새해 첫 활동을 개시했다. 청강회는 1월 25일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에서 보호 아동들 60여명에게 식료품·물품을 후원하고 저녁식사를 배식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사회봉사에는 이영채 청강회 회장(㈜지호 대표), 박상용 청강회 부회장(피에스피에프앤디㈜ 대표), 김현석(㈜인아티엔피 대표, 이용탁(㈜피플블라썸 대표, 심정훈 주식회사 정진푸드 대표, 정성휘(㈜흥두당 대표, 서

진원 주식회사 인푸드 대표, 성민수(㈜트리니티에프엔비 대표 등 청강회 회원 10여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회비 및 자비로 식료품과 후원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등을 직접 조리해 배식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치킨(김순례순살치킨), 피자(빅스타피자), 단팥빵(대구근대골목단팥빵), 방한용품(내의, 히트텍, 양말), 문화상품권 150만원상당, 그 외 간식 및 식료품을 후원품으로 전달했다.

3월 14일에는 하남시에서 신년회를 열어 올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협력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상생파트너위원회(위

원장 최인용)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월 27일 운영진 신년회로 올해 계획을 세우는 한편, 3월 21~23일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도 참가해 창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산악회(회장 정민섭)는 3월 17일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2024년 산악대회 및 시산제'를 개최한다. 이번 시산제는 특히 부울경지회 회원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연합시산제 형태로 열려 회원사 간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위원장 임영서)는 2월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졸속개정 반대 집회에

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이미지 개선과 오해 불식에 앞장섰다. 또, 3월 21일 협회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여해 언론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비스분과위원회(위원장 신희성)도 2월 20일 서울 서초구 스타몽에서 2월 월례회를, 여성회(회장 임미숙)는 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임원 신년회를 열었다. 우정회(회장 김태환)도 3월 7일 올해 첫 라운딩을 열고 한 해 심신 단련과 친목 강화의 의지를 다지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협회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황규연(₩맥스윙이링크 대표(셀렉토커피))를 위원장으로 푸드테크분과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02-3471-8135~8)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KFA**



제43기 연세대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FCEO) 입학식 개최

3월 1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 사이프러스룸에서 제43기 연세대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교육과정(이하 연대 FCEO 과정, 총동문회장 박효순) 입학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55명의 신입 원우들과 함께 박용석 연세대 상남경영원장, 박창희 주임교수, 박효순 총동문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인규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총 75여명이 참석했다.

강석우 상근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K-Culture 확산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난해부터 업계의 해외진출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북미와 유럽, 중동에서까지 K-프랜차이즈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최근 국내 가맹사업 환경은 가맹사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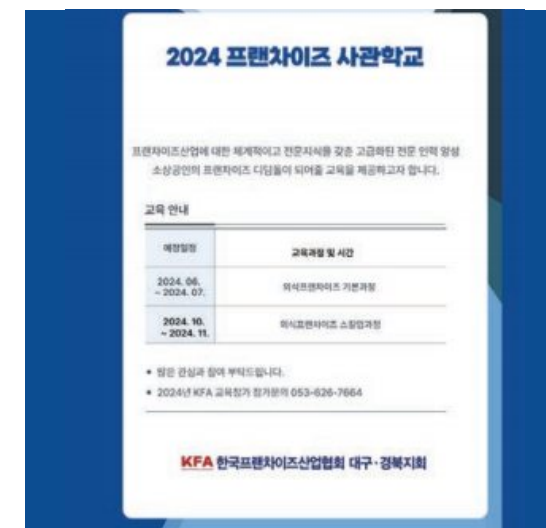
그는 “21대 국회에서만 가맹규제가 60여 건이나 발의됐으며, 우리 협회는 가맹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업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고, 국회와 정부, 언론, 학계를 대상으로 업계에 대한 인식과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연세대 FCEO 동문 여러분들과 신입 원우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43기 과정은 오는 3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14~17시에 진행되며, 수료생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장 상패, 원우 추천시 수강료 할인과 협회 공식 CEO 과정인 KFCEO 과정 수강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KFA**

대구·경북지회 소식(지회장 김병철)

2024년 상·하반기 교육예정

2024년 교육은 2차례 계획을 두고 있으며, 외식프랜차이즈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6월에서 7월에 있어질 상반기 교육에서는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디딤돌이 되어줄 외식프랜차이즈 기본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에서 11월에 계획된 하반기 교육에서는 외식프랜차이즈 스کیل업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안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KFA 교육참가 참가문의 053-626-7664



KFA

2024년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대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김병철)가 주최·주관하는 '2024 KFA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대구'가 2024년 5월 09일(목)~11일(토) 대구 엑스코 서관 2홀에서 열린다. 올해 개최되는 박람회를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홍보를 시작했으며, 2023년 5월 박람회에서 참가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2024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금부터 많은 준비와 홍보를 하고 있다.

2024년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대구 참가문의 053-626-7664



KFA

부산·울산·경남 지회 소식(지회장 오몽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이하 KFA 부울경지회)는 2024년 1월 17일(수) '2024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1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2023년 사업실적과 결산 및 2024년 한해 부울경지회의 활동 계획과 포부를 회원사들과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2024 갑진년의 첫 시작인 정기회의에 많은 회원사들과 신입회원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부울경지회에서는 2024년 1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협력 신입회원을 모집했고, 프랜차이즈본부 및 프랜차이즈협력사 신입회원 약 40명이 입회했다.

2월 20일(화)에는 2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회원사들이 참석했으며 월례회에 앞서 볼드나인의 장유현 대표의 '물류 설명회'와 부산에이스특허법률사무소의 정인규 변호사의 '상표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강의로 회원사들의 사업에 꼭 필요한 설명회와 특강을 진행했다. 매월 월례회에는 해당 월의 신입회원 입회식과 협회 현황, 부울경지회 분과 소식, 지원사업 등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경남정보대와 MOU

1월 23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와 경남정보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단기근로 및 취업 협력 관련 업무협약식이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진행됐다.

부울경지회 오몽석 회장은 "올 해 첫 업무협약이 경남정보대학이라 반갑고 지역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매칭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년일자리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해당 업무협약이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 부울경지회는 경남정보대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졸업생들에게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정보대학 박양수 부총장은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인재들을 키워내겠다.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청년취업에 관해서도 협회에서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함께 참석한 부울경지회 임원들은 "인력이 항상 부족하는데 이번 MOU로 인해 기대가 크다", "행사, 특강, 회사탐방 등 여러 방향으로 긴밀하게 업무협조하겠다", "대학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업무협약은 반드시 액션이 있어야 한다. 이번 MOU가 끝까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협력해 경남정보대와 부울경지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



2024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1월 정기월례회)



2024 2월 정기월례회



경남정보대학의 MOU체결

부산·울산·경남 지회 소식(지회장 오몽석)

정기봉사활동

부울경지회는 모라종합사회복지관과 지난해 2월에 MOU를 맺고 매월 세번째 목요일 아침 회원사들과 함께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배식보조, 잔반처리, 청소 등을 도우며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월 18일(목) 오후 첫 정기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지역사회 봉사에 이바지하고 프랜차이즈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부울경지회 오몽석 회장과 2024년 사회봉사분과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옥기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서 회원사들과 함께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2월 15일(목)에는 2월 정기봉사활동이 진행됐다. 부울경지회 회원사인 켄잇있는부엌(학교급식전문업체) 황태은 대표가 어르신들을 위해 수제햄박스테이크와 샐러드를 찬조해주신 덕분에 어르신들이 더욱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었다. 사회봉사분과 이옥기 위원장을 필두로 회원사들과 함께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다가오는 3월에는 많은 교육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6기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개강을 앞두고 있다. 춘계등산대회와 정기월례회, 임원골프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중이다.

※ 정기월례회 매월 세번째 화요일

※ 회원가입문의 051-761-2066



2024 1월 정기봉사활동



2024 2월 정기봉사활동



KFA부울경지회 2월 등산회



KFA부울경지회 2월 골프클럽

2024년 3월 ~ 5월 교육일정 안내

※ 자세한 커리큘럼 및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www.edukfa.or.kr 및 협회 홈페이지 www.ikfa.or.kr 참조 바랍니다.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계약의 이해

기 간	3월 28일(목) 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가맹계약 작성 및 해석방법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핵심 내용 학습을 통한 가맹계약의 효과적인 체결 및 관리능력 함양

훈련내용 :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조항별 검토 및 작성 실무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상생과 분쟁예방

기 간	4월 4일(목) 10:00~19: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전액 무료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직영점 경영분야 업무수행자

목 표 : 가맹사업 단계별 실제 분쟁사례 및 예방 방안과 가맹본부-가맹점 간의 갈등관리 및 상생 전략을 학습을 통해 가맹사업 분쟁 사전예방 능력 함양

훈련내용 : 가맹사업 분쟁예방 전략 및 상생방안, 가맹점 갈등 예방 및 협의 전략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점 노무관리 실무

기 간	4월 11일(목) 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가맹사업과 직결된 노동법 및 노무관리 실무 방법 및 최근 고용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학습하여 가맹점 인적자원 관리능력 함양

훈련내용 : 가맹사업 근로환경 변화, 가맹점 노무관리 실무

[재직자 무료교육] FC 가맹영업

기 간	4월 18일(목)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전액 무료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경영기획분야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 가맹점 영업전략 수립, 고객상담 전략 습득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영업 능력 함양

훈련내용 : 가맹영업전략 및 스킬

[재직자 무료교육] 슈퍼바이저 가맹점 CS

기 간	4월 25일(목)10:00~17:00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슈퍼바이저의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역량 향상

훈련내용 : 프랜차이즈 가맹점 고객관리 및 응대서비스

[재직자 무료교육] 불공정거래행위 분쟁관리

기 간	5월 9일(목)10:00~17:00(6시간)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분쟁 조정 및 소송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및 대응전략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관리능력 함양

훈련내용 : 분쟁조정 및 소송 프로세스,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및 판례 이해, 분쟁조정 및 소송 대응전략

[재직자 무료교육] 슈퍼바이저 지역점포마케팅

기 간	5월16일(목)10:00~17:00(6시간)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체계화된 지역점포마케팅의 이론과 실전스킬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점포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 함양

훈련내용 : 지역점포마케팅 전략수립 및 구축

[재직자 무료교육] 슈퍼바이저 가맹점 관리(기초)

기 간	5월23일(목)10:00~17:00(6시간)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교육인원	20명(선착순)	비 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슈퍼바이저 소속 브랜드 특성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문의 대응과 매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훈련내용 : 프랜차이즈 매장관리, 매장경영 등

2024.1.10~2024.3.7 신규회원 현황

구분	사업자대표	회사명	브랜드명	업태	가입일
정 회원	정상화	(주)이루다교육	역전타에듀학원	서비스업(교육)	2024.01.10
	현성국	현대옥프랜차이즈	현대옥공나물국밥, 현대옥치킨	외식업	2024.01.18
	안기주	(주)몬스터	몬스터커피	외식업(커피)	2024.01.19
	정은주	웰킵스푸드(주)	블랙제방소	외식업	2024.01.23
	김석영	(주)알피케이컴퍼니	레코드피자	외식업	2024.01.23
	성민수	(주)트리니티에프엔비	부엉이산장	외식업	2024.02.01
	이종철	(주)한국에프에스	백억당수육, 몸매존짜장	외식업	2024.02.02
	김용선	(주)빨라쵸	빨라쵸, 지파시	외식업	2024.02.05
	조진경	(주)엔스에에프에프	달밭굽는청년	외식업	2024.02.06
	권선영	선영FNC	안자고한우곱창	외식업(한식)	2024.02.22
	박영복	(주)와이비에프	선비꼬마김밥	외식업(분식)	2024.02.22
	김성우	(주)중독컴퍼니	카페인중독	외식업	2024.03.05
	이민규	(주)엠앤에스	동양술밥, 마라홀릭	외식업	2024.03.06
	윤인혁	백호식품(주)	델링, 맨즈쿠키	제조업	2024.01.09
	강인하	(주)로보스	로보스	제조업(로봇, 푸드스타일러)	2024.01.16
파트너 회원	이상환	(주)에스에이치인터내셔널	SH인터내셔널	서비스업(광고마케팅)	2024.01.16
	류지호	(주)주원키친시스템	주원키친시스템	도소매업	2024.01.19
	양정환	하도파파	알림마당(배달의민족 공식협력사)	서비스업(광고대행)	2024.01.18
	김창덕	아이디어창	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비스업(특허, 변리사업)	2024.01.19
	이현숙	(주)싱크닥터(에코피아)	싱크닥터, 에코피아	제조업(친환경탄소중립저감기)	2024.01.22
	박재영	(주)대신푸드	대신푸드	제조업(식육, 가공류 가공)	2024.01.22
	윤성연	영원유통	영원유통	도소매업(식자재)	2024.01.23
	김경숙	케이에스아이(주)	케이에스아이	제조(보안,통신공사 등)	2024.01.23
	우종영	(주)한국로보틱스	한국로보틱스	제조업(로봇)	2024.01.30
	차봉은	이케이플러스(여깨동무홀딩스)	여깨동무한의원, 효소선식	소매 및 서비스(의료건강)	2024.01.31
	박효상	꿈틀식품	꿈틀식품	제조업(식품)	2024.02.07
	이태연	(주)조양기업	조양기업	도소매업(주방기구)	2024.02.07
	서동범	(주)타카그룹	타카 슬라임카페	제조 및 서비스업	2024.02.14
	이성진	(주)하이클린	하이클린 초음파세척기	제조업(초음파세척기)	2024.02.13
	이정호	(주)레인보우로보틱스		제조업(로봇)	2024.02.20
	이꽃별, 조현우	(주)쿵키스	쿵키스	제조업(주방설비)	2024.02.21
	김호철	(주)엑스트라마일	라이브워크(LIVEWALK)	정보통신업(상권 및 예상매출분석솔루션)	2024.02.22.
	박상현	(주)디자인본어비	디자인본어비	건설업(실내 건축업)	2024.03.04
	김원호	(주)피아미디어그룹	피아미디어	서비스업(광고기획,제작)	2024.03.04
	박재준	(주)아바비전	아바비전	제조업(스마트 디스플레이)	2024.03.04
	최호중	진수사	진수사	외식업	2024.03.05
	정재형	(주)코보시스	와우플, 바로더	서비스업(IT솔루션)	2024.03.07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윤리강령

개정 2016. 06. 30

전 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를 높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I. 기본강령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동

회원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원사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자율적 경쟁거래를 수행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회원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사는 기업 및 가맹점, 고객의 상생을 통하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II. 행동지침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물적, 인적 시스템 구축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2. 신뢰와 협동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하는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하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다.

나. 회원사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도위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다. 회원사는 비방광고 및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라.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격 및 상품의 동질성을 앞세워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지원, 나눔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가. 회원사는 산업 구성원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영업 운영능력을 개선·향상시키도록 권장하고 그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라. 회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견소통을 이끌고 불평, 고충 및 논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뢰와 선의에 입각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III.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에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윤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착한 K-프랜차이즈는 ^{자리}일·^생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선도합니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을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회원사 100여곳을 발굴해 널리 알리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 협력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K-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립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총회 참가·개최로 세계 각국의 프랜차이즈 업계와 교류하고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 ‘K-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상생으로 서민경제를 지탱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 GDP의 6.9%(매출 120조원)와 경제활동인구의 4.5%(종사자 수 125만 명)을 갖춘 기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창업의 순기능을 활성화해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혜택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 ·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정회원사입니다.

혜택 1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2

성공 창업의 요령!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부스비 10% 환급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개최!
부스 참가 시 행사 후 부스비 10%의 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혜택 3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해외진출 사업지원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혜택 4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프랜차이즈 정부무료교육 외

프랜차이즈 국가인적자원 무료교육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최고전문가, 프랜차이즈 5.0리더, 프랜차이즈사업 전략전문가,
슈퍼바이저 전문가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혜택 5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각종 정책 정보 제공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혜택 6

최고경영자(CEO)대상 윤리준수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

혜택 7

학사 및 석사 학위 과정 장학금 혜택

경희사이버대학교 전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전 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전 학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물류유통,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 등
기타 최고위 과정의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8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포럼·세미나 행사 참가

정기 프랜차이즈 전담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9

새로운 홍보 플랫폼 홈페이지·잡지·신문·미디어 홍보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혜택 10

300명 수용 가능한 협회 교육장 임대 할인 혜택

사업설명회,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협회 교육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기준)

혜택 11

각종 규제 개선 건의 대정부 정책 건의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혜택 12

회원사 대상 복지 서비스 쿠쿠홈시스템탈, 보험비교견적,꽃배달 등

렌탈서비스 할인(쿠쿠홈시스), 협회지정업체 보험료비교견적(한국단체보험연합),
전국 꽃배달 회원사 할인(레이디플라워)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13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다양한 친목 프로그램 참가

협회 내 분과위원회 활동, 신입회원사간담회
워크숍, 봉사활동,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송년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14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계 최신 뉴스·소식 안내

회원사 전용 네이버 밴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일 중요한 업계 뉴스를 선별한 뉴스클리핑 서비스와
신속·정확한 주요 정책 소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혜택 15

최고 권위의 프랜차이즈 업계·정책 전문지 <월간 프랜차이즈 월드>무료구독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공식 협회지
월간 프랜차이즈월드 잡지 무료 구독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 회원가입 관련문의: Tel. 02)3471-8135~8, 070-7919-4145(직통)

※ KFA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SBA 국제유통센터 A동 101, 102호(등촌동, 647-26)

회원가입 신청서

신청인 정보

☐ 정회원

☐ 협력회원

사 진 (3cmX4cm)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브 랜 드 명			휴 대 전 화 (대표자)	
	대 표 자 명			팩 스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대표자)	
회 사 주 소					
홈 페이지			업 종		
담당 직원	이름 :	Tel :	가 입 경 로	☐ 홈페이지 ☐ 추천인() ☐ 기타()	
계 작 정보			☐ 개인 / ☐ 법인통장		출 금 일 자
					매월 ☐ 5일 / ☐ 14일 / ☐ 28일
회 사 명			계 좌 번 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월 납 입 액	금	원 (₩	)	협 회 계 작 번 호	국민은행 644837-04-001180 * 외환은행 630-008754-827 예금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MS 출금이체 약관】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연회비는 매년 1월에 한하여 징수하며 1월 이외 중도 가입시에는 월회비로 납부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신청하는 시점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계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하는 날로부터 해지 신청하는 시점까지 사단법인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 (☐ 동의 / ☐ 미 동의)

[관련문의] Tel)070-7919-4145 [필수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정보공개서, 대표이력서

[협회연락처] Tel)3471-8135~8 Fax)3471-8139 mail)jinpark@ikfa.or.kr 주소)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SBA 국제유통센터 A동 101, 102호 우)07563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프랜차이즈월드
Franchise
WORLD
월간

정기구독 안내

프랜차이즈월드는 150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인들 상호 간에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는 협회 공식 격월간지입니다.

구독료 안내

값: 1권 15,000원 / (주)KFN에드콤/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3-361492
전화 (02)556-7889, 팩스 (02)556-5281로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광고단가 안내

*연 5회 계약시 1회 서비스 (VAT 별도)

구분	유형	금액	수량	크기 (가로×세로mm)
A	표 4(뒷표지)	600만원	1면	전면컬러 226×296 (300dpi 해상도의 ai, psd 파일)
B	표 2 / 표 2 대면	400만원	1면	
C	표 3 / 표 3 대면	300만원	1면	
D	목차 대면	250만원	1면	
E	내지	200만원	1면	

광고, 콘텐츠, 구독 제안

*광고료 부가세별도

프랜차이즈월드

- 광고 1P 기본 200만원(내지): 연5회 계약시 1회 서비스
- 콘텐츠 2P + 광고 1p: 300만원
- 광고진행시 포털 (네이버, 다음)에 월1회 기사 게재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온라인 광고

- 배너 월 100만원(연 1,000만원)
- 청약브랜드 기사 게재 (보도자료 제공시)

창업도 온라인 광고

- 메인배너 월 200만원(연 2,000만원)
- 중간배너 월 100만원(연 1,000만원)
- 하단배너 월 70만원(연 700만원)

창업도,

- 누적 조회수: 1,200만명
- 월간 조회수: 30만명
- 프랜차이즈 약 1만2천 브랜드 순위 검색 사이트

창업도

귀사의 발전과 마케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광고대행사 **KFN에드콤** ☎02.556.788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9, 706호(두일빌딩 여의도)

국가대표 식품자동포장기 Enterpack®



깔끔하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식품 포장, 판매 프랜차이즈의 든든한 파트너!!



대표번호 031-434-9020

www.enterline.co.kr

NSF: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미국 위생협회 승인



www.enterline.com